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춤추는 우리집

(Dancing Home · 번역논문)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이 유 미

2017年 2月



# 춤추는 우리집

(Dancing Home · 번역논문)

지도교수 김 원 보

이 유 미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年 2月

이유미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

위 원 \_\_\_\_\_ ㉠

위 원 \_\_\_\_\_ ㉠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17年 2月

# Dancing Home

## 춤추는 우리집

Yoo-Mi Lee

(Supervised by Professor Won-Bo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February, 2017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  
TRANSL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비르질루에게, 영감을 주고  
나의 삶에 기쁨을 불어넣어 준 것을 감사하며:  
버지니아 마리, 로렌, 엘리슨 그리고 줄리아에게  
-알마 플로르 아다-

카밀리, 제시카 그리고 콜렛:  
너희들만의 미래를 완성하기 위하여  
배우고, 사랑하며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살기를 바라며.  
아빠, 사랑해요.  
-가브리엘 수비살레타-



# 감사의 말씀

감사합니다...

제시카와 카밀리 수비살레타,  
책 속의 많은 이야기를 이끌어주었습니다.

로살마 수비살레타, 통찰력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고,  
루벤다리오가 쓴 명시를 최초로 영어 번역했습니다.

한나 브룩스,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실수 없이 원고를 완성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사벨 캠포이, 변함없이 지지해주셨습니다.

린지 슈레겔, 원고 편집에 보여주신 열정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테네움에 우수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특히, 남라타 트리파티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귀중한 도움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목차

1. 지도	1
2. 미국으로	13
3.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24
4. 땅은 머리	29
5. 꿈 그리고 악몽	33
6. 깜짝 선물	41
7. 돌고래와 함께 하는 일상	46
8. 도서관에서	52
9. 크리스마스? 나비다드?	57
10. 진정한 크리스마스 선물	65
11. 돌고래 조련사	70
12. 코끼리를 탈 수 있다니	76
13. 정답 찾기	83
14. 포크로리코	88
15. 봄날	92
16. 또 하나의 깜짝 선물	97
17. 너 때문이 아니야	107
18. 세 번째 가족	112
19. 드레스 리허설	118
20. 멕시코에서 온 리본	121
21. 마지? 마르가리타?	127
“나의 가족”-마르가리타 “마지” 세발로스-곤잘레스	134
“아 마르가리타”/“마르가리타 에게” -루벤다리오 지음	139
“아 마르가리타(A Margarita)”, “마르가리타에게”에 대하여	149

# 1. 지도

마지는 교장실 밖에서 기다리며 초조한 마음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벽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큰 지도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지는 도널드슨 교장 선생님이 친절한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분과 단 둘이서 말을 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지도의 색깔들은 생생하고 선명했고 캐나다, 미국 그리고 멕시코 일부를 보여주고 있었다. 알래스카와 미국의 다른 지역들은 진한 초록색, 그리고 캐나다는 밝은 노란색이었다. 그렇지만 멕시코의 경우 일부분만 지도에 표시되어 있었고, 형용하기 어려운 칙칙한 흙 색깔로 되어있었다.

마지에게 있어 지도란 경이로움으로의 초대장이자, 언젠가는 전 세계를 여행할 거라는 다짐이기도 했다. 마지는 지도를 보면서 미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녀는 알래스카의 거대한 빙하를 보며 감탄하고 있는 모습, 경외의 눈으로 웅장한 그랜드캐니언을 바라보는 모습, 미드웨스트의 끝없는 평야를 응시하고, 복잡한 뉴욕 중심에서 길을 찾고 있거나 메인주의 암석해안을 둘러보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하지만 자신의 눈길이 미국의 남쪽 국경에 이르자 시선을 돌려 버렸다. 그녀는 부모님과 이웃들이 나누던 대화, 돈이 없어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는 가족들, 병원이 부족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여긴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 이런 골치 아픈 생각들은 한쪽으로 치워버리자, 마지의 가슴속에선 곧 어떤 자부심 같은 것이 솟아올랐다. 자신은 그 국경의 북쪽인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엄연히 미국인이라는...

마지는 교장실 밖 또 다른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여자 아이에게 시선을



들렸다. 마지는 사촌 루페가 미국에서 태어난 자신에 비하면 운이 없다고 생각했다. 루페는 멕시코에서 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녀가 고집을 피워 입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프릴원피스는 매우 촌스러웠다. “우리 엄마가 저를 위해 만들어 주신 거예요,”라며 루페는 입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결국 마지의 엄마는 그 옷을 입고 학교에 가는 걸 허락하셨다. 하지만 그 옷은 학교에 입고 가기엔 너무나 화려했고, 마지에겐 인형처럼 차려입은 사촌과 함께 있는 건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다. 분명 마지의 친구들은 루페가 입고 있는 오간자원피스와<sup>1)</sup> 길게 땀아 내린 머리를 놀려댈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루페와 함께 자신까지 놀려댄다면? 자신을 조롱하고, “마아르가리이타, 마아르가리이타”라고 소리쳐대며, 멕시코에서 언제 미국으로 왔는지를 물어본다면? 마지는 아이들이 자신을 그렇게 놀렸던 그때가 끔찍이도 싫었다.

친구들이 자신을 멕시코인 이라 생각지 않게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마지는 자신이 텍사스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다. 자기도 진정한 미국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마지는 루페가 이상한 원피스를 입은 채로, 자신 옆에 붙어있는 걸 본 친구들이 또 다시 놀려댈까봐 너무나 두려웠다. 친구들은 왜 그녀가 점심으로 부리또(burrito)<sup>2)</sup>를 안 싸왔는지에 대해 물을 것이고, “안 돼, 호세(José)”<sup>3)</sup>라고 말하며, 쳐다보고 웃어댈 것이다.

교장선생님이 나타나 성큼성큼 걸어가며 아이들이 자신을 따라 교장실로 오고 있는지 보고 있을 때에도 마지는 루페가 옷을 제대로 입도록 설득했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했다.

“안녕, 마르가리타, 무슨 일이니?” 교장선생님의 목소리는 매우 사무적이었다. ‘지금 매우 바쁜데...’ 라는 말처럼 들렸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 아이는 제 사촌 루페라고 해요. 멕시코에서 온지 얼마 안됐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엄마가...”

책상의 서류더미들을 정리하려던 교장선생님은 마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씀하셨다. “너희 어머니가 어제 전학신청을 하셨단다. 사촌을 네 교실로 그냥

---

1) 나일론·실크·레이온·아크릴 등으로 만든 평직 옷감. 주로 안감으로 사용하거나 이브닝드레스·블라우스 등의 장식에 이용함  
2) 밀가루반죽에 콩과 고기들을 넣어 만든 멕시코 요리  
3)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국가에서 조셉(Joseph)을 일컬어 부르는 말

데려가도록 하렴.”

“네? 저희 교실로요?” 마지는 깜짝 놀라 다급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선생님, 하지만 루페는 멕시코에서 온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루페는 말을 못해요.”

교장선생님은 마지를 보며 말씀하셨다. “그러니깐, 네 말은 루페가 영어를 못한다는 거지? 아, 그렇다면, 스페인어를 하겠구나.” 루페를 쳐다보며 교장선생님은 말씀하셨다. “루페, 페어 오크스에 온 것을 *비엔-베-니-다*(Bien-ve-ni-da), *보니토 베스티도*.”(Bonito vestido)<sup>4)</sup>

루페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땅바닥을 쳐다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차스 그라시아스*”(Muchas gracias-)<sup>5)</sup>

마지는 루페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 맞아요, 루페는 스페인어를 해요. 하지만, 저희 수업시간에 영어만 사용하잖아요. 수업을 듣기는 힘들 것 같아요.”

마지는 교장선생님 말씀에 감히 대꾸를 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깜짝 놀라긴 했지만, 줄줄 따라오는 루페와 함께 교실로 갈 수 밖에 없었다. 왜 교장선생님은 루페의 우스꽝스러운 원피스를 예쁘다 한 거지? 왜 하나같이 어른들은 모두 거짓말을 하는 걸까? 마지는 이런 것들이 의아하기만 했다.

교장선생님은 단호히 말씀하셨다.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5학년 반은 이미 정원이 초과되었단다. 더 이상 학생을 받을 순 없어. 그리고 멕시코에서 루페는 매우 우수한 학생이었잖니, 네가 학교와 집에서 조금 도와준다면, 루페는 아주 잘 해낼 거야.” 선생님은 나에게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다. “너도 내 결정에 무척 기쁘리라 생각한단다. 루페는 네 사촌이니깐, 마르가리타!”

선생님의 표정이 너무나 단호해 보였기 때문에, 마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마지는 루페에게 따라오라는 몸짓을 하며 교장실을 나섰다. 마지는 교장실을 나서며, 다시 한 번 벽을 채우고 있는 지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국은 매우 위대한 국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곳에서 태어나고 다른 친구들처럼 영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매우 기뻐했다.

---

4) 환영합니다.

5) 매우 감사합니다.

루페는 마지를 따라 복도를 걸었다. 그녀는 교장실에서 오고갔던 대화를 알아들을 수 없었다. 마지가 매우 언짢아 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 이유를 알 순 없었다. 루페는 교실로 가는 길에 있는 모든 것이 놀랍도록 새로웠다. 멕시코와는 완전히 달랐다! 루페는 이 곳처럼 벽에 무언가가 많이 걸려있는 학교는 가본 적이 없었다. 또한 그녀는 이곳의 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사실 고모가 이 사실에 대해 그녀에게 처음 알려주셨을 때, 깜짝 놀랐다. 그녀가 캘리포니아에 처음 도착했을 때, 콘수엘로 고모는 학교 갈 때 입으라며 옷을 사주셨다. 하지만 루페는 자신의 엄마가 만든 분홍색 오간자원피스를 입고 싶었다. 마지가 그 옷을 마땅치 않아하는 것 같았으나, 루페는 엄마가 만든 옷을 입으면 등교 첫날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지가 교실 문을 열었을 때, 루페는 한층 더 놀랐다. 이 곳의 학생들은 멕시코 학교처럼 깔끔하게 줄 맞춰진 책상 대신, 둘 또는 네 개의 책상들을 서로 붙여 모듈을 이루어 앉아있었다. 또한 벽에 붙은 포스터, 천장에 달려있는 모빌 그리고 책장의 다양한 책을 비롯한 교실 물건조차도 이전 학교와는 완전히 달랐다. 교실에는 심지어 어항도 있었다. 파일과 가방들이 여기저기 정신없이 흩어져있어서, 교실이기보다는 버스정류장 같았다.

당황한 루페는 교실로 들어가기가 망설여지며 두렵기까지 했다. 교실 한쪽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으니 질서 정연하게 정돈된 예전 멕시코 학교가 떠올랐다. 루페는 문득 교실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루페는 고개를 푹 숙여 자신의 발끝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어쩔 줄 모르는 루페와는 달리 마지는 곧바로 선생님 책상으로 걸어갔다.

“선생님, 애는 제 사촌 루페 곤잘레스예요. 교장선생님께서 루페를 데리고 우리 교실로 가라고 하셔서요.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요. 루페는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반으로 가야하지 않나요?”

선생님은 아무 대답 없이 루페를 향해 몸을 돌렸다. 마지는 교실 입구에 꼼짝 않은 채로 서있는 루페에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하지만 루페는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마지는 교실 문 앞으로 다시 걸어가 루페의 팔을 움켜잡았다. 마지가 팔을 잡자 루페는 화들짝 놀랐고, 이를 본 교실의 학생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제서야 바닥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루페는 고개를 들었고, 자신의 사촌 얼굴이

새빨개진 것을 알아챘다.

너무나도 당황한 마지는 루페를 끌고 존스 선생님에게로 갔다.

“루페, 브에노스 디아스. 코모 에스타 우스떼?”(*Buenos días, Lupe. ¿Cómo estás usted?*)<sup>6)</sup> 선생님은 형식적인 스페인 인사말의 낱말 하나하나를 발음하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너무나도 정중한 인사에 놀란 루페는, 선생님의 서툰 스페인어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루페는 존경을 표하는 법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개를 숙였다. 반 아이들은 점점 더 깔깔대고 웃기 시작했다.

“마지, 교실 뒤편에 네 사촌과 함께 앉으면 어떻겠니? 그러면 네가 루페에게 통역해줄 수 있잖니. 내가 아는 스페인어는 인사말이 전부란다.”

“선생님, 그렇지만...” 마지의 목소리는 다급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 “저도 스페인어를 잘 하는 건 아니에요. 전부 통역할 만큼 잘하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제 자리는 앞쪽이고, 리즈와 짝인걸요.”

“뒤쪽 빈자리로 옮기면 되지. 그렇게 하면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루페에게 내 말을 통역해줄 수 있잖니. 자, 이제 자리로 가렴. 수업 시작할 시간이다. 마지, 그리고, 네 사촌에게 부끄럽더라도 내가 이야기할 때는 날 쳐다봐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렴.”

마지는 새로운 자리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반면 루페는 선생님 책상 앞에 계속해서 서있었다. 교실 여기저기서 또 다시 웃음이 터져 나오자, 마지는 루페의 팔을 잡고, 교실 뒤편으로 데리고 갔다. 루페는 아무 말 없이 마지를 따라 갔다. 루페가 용기를 내어서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짓자, 아이들은 또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소리는 선생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 까지 계속 이어졌다.

선생님은 청교도들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고, 마지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을 스페인어로 옮기기 위해 단어들을 계속 찾았다. 하지만 선생님 설명의 반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고, 결국 입을 다물어 버렸다. 루페는 무언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선생님을 쳐다봤으나, 선생님은 역사책의 책장을 넘기며 삽화들을 살피느라 바빴다.

마지는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속상함이 밀려왔다. 마지는 줄곧 앞자리에 앉

---

6) 안녕 하세요. 잘 지내세요?

는 것을 좋아했었고, 또 리즈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하지만 지금 마지는 앞자리가 아닌 교실 뒤편에 앉아있고, 리즈는 베티와 짝이 되었다. 그리고 리즈와 베티는 벌써 단짝 친구인 것 마냥 웃으며, 잡담을 하고 있었다.

루페가 마지의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해 미국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마지 역시 몹시 흥분되었었다. 마지는 형제자매가 없었고, 집 근처에 사는 친구도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무척 즐거울 것 같았다. 게다가 저녁을 먹은 후 마지가 담당하는 설거지, 주방 정리 같은 집안일들을 함께 한다면 그 또한 더 쉽고 재미있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도 루페와 함께라면, 마지가 리즈네 집이나 쇼핑몰 같은 곳에 놀러갈 때 엄마의 허락을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할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마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학교생활이 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당연히 교문을 들어서면 루페는 이중 언어 교실로, 자신은 친구들과 자신의 교실로 갈 거라 생각했다.

“마지! 내 말 안 들리니?” 선생님 목소리에 화가 묻어났다. 또 다시 마지는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고, 반 친구들은 그런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도대체 언제 내 말을 사촌에게 통역해줄 생각이니?”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스페인어를 잘 못해요. 전 텍사스에서 태어났다고요” 마지의 이런 애절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오른쪽에 앉은 존과 피터의 웃음소리만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만! 선생님은 존과 피터에게 조용히 하라는 표정을 지었다. “모두 수학 문제집 꺼내도록.”

마지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모든 게 한꺼번에 변할 수 있지? 지금까지 이 교실은 마지에게 편안함과 행복을 주는 공간 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녀는 수학책의 숫자가 흐릿하게 보여 잘 읽을 수 없었지만, 책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선생님과 사촌 마지가 말을 주고받는 동안 루페는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었다. 그 대화를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자신 때문이라는 것은 분명했고,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역사 교과서에 파묻어 버렸다. 할 수만 있다면 책상 아래로 숨어버리고 싶었다. 아니 가능하다면, 다시 멕시코로 돌아가고 싶었다.

선생님은 교실 뒤편으로 걸어와 수학 문제집을 펼쳐 루페 책상위에 놓았다. 루페는 책에 적혀있는 숫자들을 보고는, 입가에 열은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뭘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루페는 연필을 꺼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시작했다. 반면 마지는 똑 같은 페이지를 매우 더딘 속도로 풀어갔다.

마지막 방정식 까지 모두 끝낸 루페는 책장을 넘겼다. 하지만, 거기엔 숫자는 없었다. 오직 글만 있었다. 그녀는 당황해 마지를 바라 봤지만, 그녀는 앞장의 반도 채 풀지 못하고 있었다.

루페는 또 다시 어찌할 바를 몰랐고, 금세 두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선생님이 다시 교실 뒤쪽으로 걸어오자, 루페는 황급히 수학 문제가 있었던 앞장을 펼쳤다.

“대단한걸!” 선생님은 기뻐하며 목소리 톤이 높아졌다. “*익스셀렌티*”(¡Excelente!) 선생님은 루페의 책을 높이 들어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마지에게 말했다. “마지, 다음 장에 있는 단어문제들을 통역해줄 수 있겠니?”

그러자 마지는 고개를 들고, 머리를 가로저었다. “전 못해요. 선생님 정말로 못하겠어요.”

선생님은 루페에게 다시 수학문제가 있는 페이지를 펼쳐주고는 교실 앞쪽으로 돌아갔다.

선생님이 앞쪽으로 가자 루페는 마지가 푼 문제들을 보았다. 그리고는 그 문제들 중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노 이스 아시*.”(No es así)<sup>7)</sup>남자애들은 길길대며, “*노 익스셀렌티, 마아가리이이타*.”(No excelente, Maaargaaareeetaaa) 라고 놀려댔다. 마지는 다시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인채로, 루페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기를 바랐다.

점심시간에 마지와 루페는 학생들이 서있는 줄의 맨 끝에 섰다. 루페는 마지가 곱슬머리 여자애 옆 자리에 앉으려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드디어 이들의 차례가 되어 음식을 받았을 땐, 자리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루페와 마지는 곱슬머리 여자아이의 자리 반대쪽 끝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루페는 점심을 먹으며 마지에게 몇 차례 말을 걸어보았지만, 마지는 시종일관

---

7) 그건 틀렸어.

침묵으로 일관했다. 루페도 조용히 밥을 먹었다. 마지는 식판에 있는 음식의 대부분을 남겼다.



## 2. 미국으로

노크소리에 응답을 했을 때, 루페는 이제껏 한번 도 본 적 없는 사람이 방문 앞에 있는 걸 보고 매우 놀랐다. 루페는 이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 그녀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왠지 낯이 익었다.

언뜻 보기에 이 마을 여성들 보다 훨씬 더 세련된 옷차림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여자들처럼 머리는 길었지만, 땅지 않은 채로 가지런히 꼬아 목 뒤로 넘겨 놓았다.

그녀는 잠시 동안 말없이 루페를 바라본 후, 미소를 지으며 큰소리로 말했다. “루페! 루페 맞지?” 그리고는 대답도 듣지 않은 채 루페를 와락 껴안았다.

“난 콘수엘로라고 한단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네 고모란다.”

루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루페는 항상 고모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다.

루페는 살짝 웃어보였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고모는 할 말이 많은 것 같았다.

처음에는 엄마 어디 계시냐고 물었다. 루페가 엄마는 쌍둥이 동생들을 데리고 로사리아 이모와 함께 시장에 갔다고 말하자, 고모는 루페에게 앉자고 하면서, 자기도 다른 의자를 찾아 앉았다.

“루페, 내가 오늘 여기에 온 건 혹시 나와 함께 캘리포니아로 갈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서야. 너도 알다시피 나는 네 아빠의 단 하나밖에 없는 누나잖니.”

루페의 아버지...아주 오랫동안 어느 누구도 루페 앞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었다. 몇 년 전 이 마을의 다른 남자들처럼 루페의 아버지 후안(Juan)도



희망의 땅 미국으로 떠났다. 여행비용 마련을 위해 가족 소유의 땅을 판 아빠는 미국에 가면 돈을 벌어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모든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했다. 아빠는 캘리포니아의 스톡턴에 있는 아스파라거스 농장으로 떠났다. 루페의 엄마 돌로레스는 아빠가 떠나지 않기를 바랐지만, 막을 수는 없었다.

아빠로부터 무사히 캘리포니아에 도착했다는 편지를 받고서야 엄마는 안심했다. 그 후 몇 달간 아버지는 편지와 약간의 돈을 함께 보내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편지도 돈도 더 이상은 오지 않았다. 엄마도 아빠가 비자 없이 국경을 넘은 것이므로 가족을 보러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았지만, 돈과 편지마저 끊길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어린 시절 자신을 업어주거나 하늘 높이 목말을 태우고 다니면서도,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던 아빠가 그리웠다. 밤이 되면 아빠가 들려주던 멋진 이야기들도 그리웠다. 이야기 속 아빠는 괴물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구출하는 영웅이었다. 또 아빠의 기타 연주소리를 들으며 잠들곤 했던 때가 그리웠다. 기타소리가 집안가득 울려 퍼지면 루페는 단꿈에 빠져들었다. 아빠가 없는 지금의 집은 슬프고 적막했다.

아빠가 떠난 뒤, 밤이 되면 엄마의 울음소리가 종종 들렸다. 엄마는 내색 하지 않았지만, 아빠가 혹시 병에 걸리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친척들은 직접 일군 야채를 나눠주거나, 가게에서 식료품들을 가져다주는 등 루페의 가족을 다양한 방법으로 도왔다. 엄마는 생계를 위해 양모를 빗질하거나 세척하는 일을 했다. 하지만 돈도, 음식도 그리고 옷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충분하지 못했다.

아빠가 떠난 지 약 삼년이 흘렀을 때, 스톡턴에서 온 한 남자가 아빠는 이미 캘리포니아를 떠났다고 말했다. 그는 아빠를 시카고에서 봤다는 사람을 알고 있었고, 그곳에서 아빠는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다.

처음엔 루페의 엄마는 매우 절망했다. 엄마는 일을 찾는 것을 그만둔 채, 울기만 했다. 그 후 엄마는 요리도 하지 않고, 루페에게는 할머니 집에서 먹고 오라고 하였다. 그 후 몇 주간 엄마는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혼란 상태에 있었다. 집

을 살살이 뒤져 먼지 하나 없이 청소했고, 아빠와 관련된 것이라면 낡은 신발, 오래된 셔츠 몇 장까지도 치워버렸다. 그리고는 마침내 엄마는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더니, 얼마 되지 않아 가장 큰 카펫 직조공장 중 한곳에 취업을 했다. 그 후 엄마는 아침 일찍 나가고, 늦은 밤이 돼서야 돌아왔기 때문에 루페는 엄마를 잘 볼 수 없었다. 루페는 그 후로 항상 메르세데스 할머니 댁에서 밥을 먹었다. 엄마가 더 이상 자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고, 자신은 아빠가 남기고 간 것들 중 하나이며, 엄마에게 고통을 주는 과거의 기억인 것처럼 느껴졌다.

약 2년 전, 루페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엄마는 앞으로 우리와 함께 지낼 거라며 한 남자를 소개했다. 엄마는 루페를 보지 않은 채로 말씀하셨다. “인사하렴, 펠리페라고 해, 네 새 아버지란다.” 그 남자도 루페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그 후 엄마는 많이 밝아졌다.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루페는 더 이상 할머니 댁에서 밥을 먹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집 느낌은 찾을 수가 없었다.

1년 후, 엄마는 쌍둥이를 출산하였다.

루페는 남동생들이 태어나던 순간, 오랜만에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예쁜 아기들을 보며 행복에 젖었고, 아주 작은 손과 발을 보며 경탄했다. 루페는 남동생 페드로와 파블로를 돌보는 것이 매우 즐거웠고, 직접 아이들의 옷을 빨아 입히고, 음식을 먹이기도 하였다.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지켜보고, 일상의 작은 변화들을 바라보면서 루페는 점점 활력을 되찾았다. 그리고 루페와 엄마사이에는 쌍둥이에 대한 사랑을 함께 공유하며, 이전에 없던 새로운 끈끈함이 생겨나는 것 같았다.

때때로 엄마는 루페의 머리를 예쁘게 빗질해주고, 루페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며 새로운 블라우스를 만들어주는 등의 특별한 선물을 해주곤 했다. 하지만 흔한 일은 아니었다. 루페에게 자수를 가르쳐주던, 시시콜콜 잡담을 나누던 그리고 좋은 성적을 받고 집에 왔을 때 자신을 대견해하던 엄마가 너무나도 그리웠다.

루페는 가끔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엄마 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마치 자신이 그냥 엄마의 친구가 된 것 같았다.

1년에 두 번, 크리스마스과 루페의 생일날이 되면 미국에서 소포가 왔다. 물론 아버지가 보낸 것은 아니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리고 지금은 루페의 건너편에 앉아있는 고모가 보낸 것이었다. 이 고모 덕분에 루페는 새로운 원피스며 치마, 셔츠, 양말 그리고 운동화를 가질 수 있었다.

지금까지 잘 몰랐던 그 고모가 이곳에 함께 있고, 루페에게 캘리포니아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네 사촌, 마르가리타도 너랑 같은 나이란다. 함께 놀고, 학교도 함께 다닐 수 있지. 영어를 배우기도 쉬울 거야.”

루페는 고모의 말에 머리가 멍해지고,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아픔이 밀려왔다. 이 곳을 떠난다는 것은 즉, 쌍둥이 남동생들과 이별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소중한 사람들, 특히 메르세데스 할머니와 여러 친척들을 두고 떠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이방인이 된 것 같은 우스꽝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도 의미한다. 더 이상 루페는 어린 아이가 아니었고, 그녀의 집에는 새로운 식구가 있다. 항상 새아버지 앞에서는 편치 않았고, 새아버지 역시도, 특히 엄마와 언쟁을 했을 때에는 루페를 불편해한다는 것을 그녀 역시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많은 면에서 엄마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떠나야할 때 인 것 같았다. 내심 아버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조심스럽게 가져보았다.

고모부 프란체스코도 루페가 미국에 오길 바라고 있고, 캘리포니아에 오게 되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고모의 이야기가 끝날 즈음, 루페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솔직하게 물었다. “고모, 제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지 아세요?”

루페가 이 질문을 할 거라는 것을 고모는 이미 알고 계신 듯 했다. 고모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 루피타.(Lupita) 나도 매우 슬프구나. 하지만 네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모른다. 난 네 아버지가 캘리포니아에 오기 몇 년 전부터 미국에 있었어. 네 아버지가 왜 날 찾아오지 않았는지 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 예전에 네 아버지에게 했던 학업과 결혼에 대한 나의 충고들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의 없이 가족소유의 땅을 팔아버려서, 날 보는 것이 두려웠던 것일

수도 있고....네 아버지가 미국으로 왔을 때, 내가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지. 나는 그때 이미 결혼도 했고, 네 고모부는 매우 좋은 사람이거든. 하지만 나는 네 엄마의 남동생이 편지로 알려주기 전까지는, 후안이 미국으로 떠난 것에 대해 정말 몰랐단다. 그리고 후안은 나에게 어떤 연락도 없었어. 미안하구나, 루페.”

고모의 말을 듣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고모는 말을 이어갔다. “네 아버지가 아무 연락도 없어 많이 힘들지? 하지만 루피타, 비자가 없는 사람들은 단지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전 재산을 쓰기도 한단다. 종종 이러한 사람들은 국경을 넘도록 해준 인간들에게 빚을 지게 되지.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찾을 수 있는 직업이라곤 불확실한 일용직 같은 거지. 매우 적은 임금을 받고 일 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곤 한단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빚을 갚기 위한 충분한 돈을 모을 때까지, 대합실 같은 방의 작은 침대하나만 빌려 살곤 하지. 그리고 출입국 관리 당국에 잡혀 추방될까봐 두려움에 떨며 지낸단다. 공포 속의 삶은 평상시라면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게도 만든단다. 네 아버지의 행동은 물론 옳지 않아, 하지만, 후안은 아마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있을게다.”

루페는 손등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고모의 말속에 묻어있는 슬픔이 루페에게 그동안 감춰왔던 아픔을 털어놓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사라지고 난후 루페가 느꼈던 가장 힘든 점은 어떤 누구에게도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엄마는 뭐라고 하세요? 저희 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너와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던단다,” 고모는 대답 후 말을 이어갔다. “사실, 네 외할머니를 만나보고 왔단다.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더라고. 할머니는 너를 무척 사랑하신단다. 물론,, 네가 떠난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무척 슬퍼하시겠지만, 하지만 할머니도 이것이 너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하셔.”

“루페는 자신의 엄마의 엄마인 메르세데스 할머니를 떠올렸다. 엄마가 방황하던 시절, 버팀목처럼 지켜주시던 분이셨다. 할머니는 힘든 시절 유일하게 흔들림 없이 제자리를 지켜주던 단 한사람이었다. 단지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준 것뿐만 아니라, 루페에게 많은 사랑을 나눠 주셨다. 할머니는 루페가 학교를 마치고 가면 종종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놓고 계셨다. 그리고 그녀는 매일매일 학교에서 무

엇을 배웠는지도 궁금해 하셨다. 특히, 엄마가 늦게까지 데리러오지 않을 때에는 루페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하셨다.

최근 할머니는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외삼촌댁으로 가셨다. 하지만 외삼촌은 어린 자식들이 많이 있고, 할머니는 손자들을 돌보느라 편히 쉬실 수 없다.

“할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네, 가겠어요.” 루페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고모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고모는 루페의 표정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미 미국으로 떠날 모든 준비가 되어있었다. 루페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콘수엘로 고모는 가끔씩 멕시코를 여행하는 한 여자 분을 도와주었다고 했다. 그 분은 한 달에 한번 멕시코 오악사카에 갔고, 그때마다 고모에게 동행을 요청했다고 한다. 마침 그 분 남동생이 멕시코시티에 있는 주미 영사관에 근무 중이었고, 고모와 고모부 역시 미국 시민권자이였으므로 루페는 학생비자를 쉽게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루페의 엄마는 이 소식을 듣고 많이 당황했지만, 메르세데스 할머니의 설득으로 엄마도 동의하게 되었다. 그 후 엄마는 루페를 위해 화려한 오간자원피스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엄마의 사랑 표현법이었다. 그리고 루페에게는 그 옷을 입는 것이야말로 딸로 엄마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늘 그녀를 생각할 것이라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 3.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지난 몇 주간 마지는 선생님의 지시대로 최선을 다해 루페에게 통역을 해주었다. 엄마 역시도 루페를 잘 도와주라고 계속 말씀하셨다. 하지만 마지가 이 일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통역은 너무 어려웠다. 그녀는 주어진 임무를 잘해내고 있지 못하다는 좌절감에 나날이 우울해졌다.

드디어 이중 언어 사용 학급에 결원이 생기자, 존스 선생님은 마지에게 루페를 로드리게스 선생님 반으로 데려 가라고 하셨다. 그제야 비로소 마지는 한숨 돌릴 수 있었다.

엄마가 루페의 긴 머리를 땀을 닦고 있는 동안, 마지는 주방에 앉아 엄마에게 설명하려 애쓰고 있었다. “엄마, 이건 루페에게 훨씬 잘 된 거예요. 영어를 배우는 동시에, 다른 과목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 잘 될 거야, *또도 살드라 비엔*,”(*Todo saldrá*) 엄마는 미소 지은 채, 루페의 머리를 빗질하며 대답 하셨다. 루페의 머리가 완성되었을 때는, 엄청나게 큰 빨간 리본이 머리에 자리 잡고 있었고, 등 뒤로 땀이 내린 머리는 매우 굵고 길게 아래로 뻗어져 있었다. 마지의 엄마는 루페에게 뒤뜰에 있는 레몬나무에서 레몬 몇 개를 따다가 이웃사촌인 후아레스 아주머니 댁에 가져다주라 하셨다.

루페가 나간 후, 엄마는 말씀하셨다. “마지, 왜 계속 선생님께 스페인어를 못한다고 말했니? 네가 처음 한 말은 스페인어였어. 그건 네 조부모 그리고 삼촌과 숙모의 언어야. 그리고 네 아버지의 언어고, 내 언어란다. 생각해보렴, 영어와 스페인어 모두를 할 수 있다는 건 매우 멋진 일이란다.”

“하지만, 엄마,, 여기는 미국이에요. 영어를 쓰는 나라라고요. 미국에 살면, 미국인의 언어를 써야죠, 모두가 사용하는 말어요.” 마지는 엄마의 당황한 표정을

보았다. 결론은 나지 않았다. 엄마와 마지는 과거에도 수차례 이러한 논쟁을 했었다. “이제 숙제 하러 갈게요.” 마지는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마지는 침대에 누워 스페인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다. 어찌면 세상 때는 자신이 다른 아이들 보다 스페인어를 잘했을 수도 있다. 그 후로 마지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sup>8)</sup>을 시작했고, 그 이후로 영어를 사용했다. 생각해보면 과거에 엄마와 아빠가 스페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무척 뿌듯해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그렇다. 집 안에서 엄마가 자신에게 스페인어로 하는 말은 거의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가 둘이 끊임없는 대화를 이어가거나, 엄마가 숙모와 이야기할 때는 거의 알아듣지 못한다. 분명, 스페인어를 하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뭘까? 이곳의 언어는 영어다. 이 곳에 사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영어이다. 하지만 마지는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혼란스럽고 괴로울 뿐이었다.

며칠이 지나서 마지는 루페와 다른 반만 되면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알았다. 마지는 담임선생님께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리즈와 베티는 단짝이 되어있었고, 베티는 자리를 옮기려 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마지는 교실 뒤쪽 즉, 존과 피터의 옆 자리에 계속해서 홀로 앉을 수밖에 없었다.

반의 개구쟁이 남학생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지가 3학년까지 사용했던 스페인 이름을 가지고 놀려댔다. “마아아르가아아리이이타아아, 네 사촌은 잘 지내니?” 피터의 놀림은 점점 심해져만 갔다. 피터는 왜 계속해서 놀려대는 걸까?

존은 심지어 더 심하게 놀려댔다. 하루 종일 존은 마지에게 조롱의 말을 해댔다. “설마 네 사촌은 아직도 머리를 말리고 있는 건 아니겠지?, 말은 할 수 있는 거야?” 또는 “혹시 멕시코에 혀를 감박하고 놓고 온 것은 아니야?” 이런 식의 말들이었다. 그러면 피터는 옆에서 이런 말을 처음 듣는 것 마냥 웃어댔다.

마지는 외톨이로 지낸다는 것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었다. 마지는 텍사스에서

---

8) 미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유아의 성장 및 발달, 건강 및 영양 그리고 부모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고, 무척 외로웠었다. 그때 이름 바꾸기, 리즈와 친해지기 등의 노력들을 하며 이곳에 적응하려 애썼다. 자신은 친구들이 놀릴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오산이었고, 조롱과 놀림은 여전히 너무나도 쓰린 아픔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 했던 노력은 겨우 적응한 척을 하며 지낼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같았다.

또 다시 아이들은 이름을 갖고 놀려대기 시작했고, 이번엔 자신뿐만 아니라 루페도 함께 당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전보다 훨씬 더 슬펐다. 자신이 루페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마지가 루페의 적응을 위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중 최악은, 루페가 앞으로 헤쳐 나가야만 하는 것들을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왜 단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놀려대는 것일까? 왜 아이들은 그러한 다름이 새로운 언어와 환경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모를까? 루페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아픔을 겪고 있다.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루페는 배려나 연민의 시선도 받을 자격이 없는 걸까?

존과 피터는 자신들은 미국인이며, 부유하고 강대한 미국이라는 곳에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그렇다면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이들을 괴롭히며 조롱해도 된다는 뜻일까?



## 4. 땅은 머리

마지는 학교에서 루페가 앉았던 빈자리를 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마치 루페가 교실을 떠나지 않은 채, 계속 그 자리에서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학교에서와는 반대로, 집에서 루페의 존재는 상당히 커졌다. 루페는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했고, 고모부이자 마지의 아빠가 해주는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지겨운 줄 모르고 들었다. 아빠는 가족들과 농사를 지었던 일, 농사를 벗어나 처음으로 가졌던 직업과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새롭게 결심하고 시작한 야간 강좌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아빠가 열의에 가득 차 스페인어로 말하는 동안 마지는 거의 알아듣지 못했고, 그에 반해 루페는 그 이야기에 흠뻑 빠져 있었다.

아빠는 멕시코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빠의 아버지이자 마지의 조부인 라파엘이 브라세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오게 된 것도 함께 설명해주었다. 브라세로 프로그램은 멕시코 농부들을 캘리포니아, 사우스 웨스트 그리고 미국전역으로 보내, 농업에 종사하게 하는 미국과 멕시코간의 협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거대 농업 기업이 다수의 미국 가족 농장을 구입하던 시점에 시작되었다. 새로운 방식의 공장 식 농업은 많은 계절노동자를 필요로 했다. 미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이러한 종류의 저임금 노동을 하려하지 않자, 농업 기업들로 하여금 멕시코의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계절노동자를 가리켜 브라세로라고 불렀다.

마지의 아빠는 루페에게 *코리도스 데 브라세로*(*corridos de braceros*)를 가르쳐주었는데, 이것은 브라세로들이 미국으로 향하는 오랜 기차 여정에서 부르던

노래였다. *코리도스(corridos)*는 브라세로들의 고충, 그들이 남겨두고 온 것에 대한 향수 및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였다. 이 거대한 나라가 자신들을 집어삼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은 채, 사랑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담아 노래를 불렀다. 아빠는 마지가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먼 한 두 구절을 영어로 부르곤 했다. “마르가리타, 나는 루페에게 그때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다. 너도 이 이야기를 알고 알지.” 그리고 아빠는 마지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스페인어로 계속 이어갔다.

마지는 이 이야기들 중 몇 개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빠가 루페에게 말해주고 있는 지금처럼 그 이야기들에 마음을 빼앗겨 보긴 처음이었다. 마지도 따라 불러 보려했지만, 이해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었고, 엄마 아빠 그리고 루페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고 자신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자 점차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마지는 왜 웃었는지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녀는 딱 한번 스페인어 농담에 대해 설명을 부탁해서 들었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마지가 이해를 못하자 다른 이들은 더 크게 웃기 시작했다. 이러자 마지는 엄마, 아빠가 자신이 아닌 루페의 부모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자신과 엄마 아빠, 이렇게 세 명이 함께(그 당시는 세 명이었으니깐)였다는 것이 떠오르며, 아빠가 퇴근 후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해 주곤 했던 때가 그리웠다. 지금 아빠의 모든 이야기는 과거에 대한 것뿐이었다.

그리고 땡은 머리가 보였다. 루페의 땡은 머리는 마지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모든 변화의 상징물과도 같았다.

학기 초, 마지는 엄마에게 과마를 하게 해달라고 졸랐다. 리즈는 아름다운 갈색 머리칼을 가졌고, 마지가 생각할 때 리즈의 머리아 말로 전형적인 미국 여자 아이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검은 생머리가 예쁘다고 말하며 마지를 계속 설득하셨지만, 결국 마지못해 마지가 과마하는 것을 허락했다.

지금 엄마는 매일 아침과 오후가 되면 긴 시간을 들여 루페의 머리를 빗질하고 땡아준다. 예전의 엄마는 마지에게 학교생활이 어땠는지, 하루는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 물어보며 진심으로 궁금해 하셨던 반면, 지금은 사촌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어디에서도 마지가 이전에 엄마에게 느꼈던 친밀

감은 없는 것 같았다.

## 5. 꿈 그리고 악몽

루페의 하루하루는 새로운 경험들로 넘쳐났고, 그녀는 과거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이곳의 학교는 멕시코와는 완전히 달랐다. 멕시코에서는 대부분의 수업 시간동안 선생님이 교실 앞쪽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칠판에 있는 글씨를 받아 적곤 했다. 때때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칠판 앞으로 나와 수학문제를 풀거나 문장을 쓰고 해석하는 것을 시키곤 했다. 그리고 선생님이 보지 않으실 때 잠깐 잠깐 속삭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학생들은 열이 잘 맞춰진 책상에 앉아 다른 친구들과 서로 떠들지 않고, 조용히 수업을 받았다.

로드리게스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4명씩 그룹을 지어 앉는다. 이 곳에서 학생들은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정보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동이 요구된다. 학생들은 종종 책이나 컴퓨터 자료를 찾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을 돌아다닌다.

루페도 이러한 방식이 좋았지만, 아직 익숙하지는 않았다. 때때로 루페는 예전 학교의 규범과 방식이 그리웠다. 동시에 지금의 변화들이 점점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고모가 예전 했던 말이 생각이 났다. “로 게 노 테 마타, 테 하세 마스 푸에르테.”(*Lo, que no te mata, te hace más fuerte*) 이 고통을 견뎌내면 더 강해진다.

영어로 해야 하는 수업을 받을 때면, 루페는 특히 좌절감이 들었다. 예전 마지의 반에서 공부하는 동안 루페는 계속해서 너무 창피했고, 많은 아이들이 자신을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예전 멕시코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자신을 매우 영리한 아이라 생각했었다. 루페는 모든 것을 잘해내던 학생에서 수학을 제

외하곤 거의 어떤 것도 잘 해내지 못하는 학생이 되었다.

현재 이중 언어 학급에서, 루페는 스페인어로 진행되는 수업은 매우 잘 해냈지만,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에서는 여전히 어찌할 바를 몰랐다. 매일매일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았지만, 영어로 소통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다. 그녀는 실수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영어로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처음 몇 주간 아이들의 놀림과 조롱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다.

루페는 이 곳에서 자신이 얼마나 모국어를 사랑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지금 학교의 선생님이 루페가 갓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배웠던 노래와 시를 이야기할 때, 또는 멕시코에서 루페와 친구들이 쉬는 시간이면 부르던 줄넘기 노래 같은 것들을 지금의 같은 반 친구가 알고 있을 때면,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 들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있어 가장 힘든 점은 바로 소외감이었다. 루페는 어디가 웃긴 부분인지 알 수 없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웃고 있는데 자신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싫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루페는 사람들이 농담을 하거나 꼬아 말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가 어려웠다. 루페는 멕시코에서 있을 때 매우 우수한 5학년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겁먹은 유치원 어린이가 된 것 같았다.

루페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적어도 1주일에 한번 이상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루페는 멕시코 학교에서 진행하던 금요 문화행사에서 전교생을 앞에 두고 시를 낭독해야만 했다. 루페는 이 행사를 좋아했었고, 시 암송을 할 때면 행복했었다. 그러나 꿈속에서 시 암송을 듣고 있는 청중이 예전 멕시코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아닌, 바로 이곳 캘리포니아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이었다. 시 암송을 시작하려고 입을 벌렸지만,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고는 오리처럼 뻑뻑되는 소리를 내다 식은땀을 흘리고 잠에서 깨어났다. 루페 자신도 이 꿈이 말도 안 되는 꿈이라 생각했지만, 같은 꿈이 계속하여 반복되었다.

하루는 꿈속에서 루페가 예전 학교를 걸어가는데, 처음엔 입고 있던 교복 치마가, 그 다음엔 블라우스가 차례대로 떨어지더니, 마지막엔 면내의 하나만 걸치고 있었다. 그리고 종이 울리자 예전 학교의 친구들이 모두 몰려 나와 믿지 못하겠

다는 눈으로 루페를 쳐다보았다. 숨을 곳도 없었다. 루페는 항상 깜짝 놀라 잠에서 깬고, 그때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어느 때는 꿈속의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있기도 했다. 가구가 천장에 매달려 있고, 고양이가 짓고, 개가 울어 대며, 콘수엘로 고모가 거실에서 키우던 카나리아가 메르스테스 할머니의 주방에 앉아있던 앵무새의 목소리로 말하곤 했다.

이러한 꿈에서 깬 때마다, 루페는 고모가 켜 놓은 희미한 취침 등이 비추고 있는 방안을 둘러보았다. 루페가 지금의 방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예전 루페의 방 보다 크고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안전함 때문이었다. 여기서 루페는 엄마의 눈물, 분노 심지어 엄마가 없다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미국에 오기 몇 달 전부터, 술에 취해 늦은 밤 들어오기 시작한 새아버지와 우연히 마주치는 것을 더 이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며, 엄마의 푸념과 뒤이어 벌어지는 부부싸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고, 그녀는 뿔 듯이 기뻐했다.

그러나 이 곳의 안전함이 좋은 것 못지않게 극심한 그리움이 루페에게 몰아치는 순간들이 생겨났다. 그녀는 쌍둥이 남동생 그리고 엄마와 할머니와 보냈던 행복한 시간들이 그리웠다. 아이들이 밭에서 잡아와 기름에 튀기면 아주 그럴듯한 별미로 변하던 메뚜기와 매미 같은 곤충뿐만 아니라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들, 바람에 나부끼는 옥수수 밭 그리고 언덕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떼들이 그리웠다.

멕시코에서 루페는 단짝친구가 적었다. 가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친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루페는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며, 쉬는 시간 틈틈이 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금, 한 밤 중 잠이 깬 때, 루페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예전 학교 운동장에서 부르던 노래를 마음속으로 되풀이 하는 것뿐이었다.

*아 라 비보라, 비보라, 데 라 마르(A la víbora, víbora, de la mar)*

오, 여기 뱀이 있네, 바다뱀이 있네,

*쁘르 아꾸 푸에텐 빠사르.(por aquí pueden pasar)*

널 따라올 수 있으면, 널 놓아줄게.

또는 할머니가 루페의 사촌동생에게 불러주던 자장가도 불러보았다.

*팔로미따, 블란카, 레블란카, (Palomita blanca, reblanca)*

작은 하얀 비둘기야, 오, 작은 하얀 비둘기,

*돈테 에스타 뚜 니도, 레니도?(¿dónde está tu nido, renido?)*

너의 둥지는 어디니, 너만의 둥지가 어디 있니?

*엔 언 피노 베르테, 레베르테(En un pino verde, reverde)*

소나무 위, 푸르른 그곳,

*또도 플로레시도.(todo florecido)*

울창한 소나무, 여기가 바로 네가 본 가장 아름다운 그 곳,

루페는 아래쪽 옥수수 밭 위로 높게 솟아있고, 고향마을을 감싸고 있던 언덕에서 야생화를 모으던 때처럼 언젠가 다시 행복을 채워 나갈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메르세데스 할머니, 남동생과의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또 어느 날은 그녀에게 고마운 모든 것을 생각했다. 콘수엘로 고모는 어릴 적 엄마가 루페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녀를 아껴주셨다. 루페는 엄마의 사랑이 너무나도 그리웠었고, 지금 루페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다. 프란체스코 고모부의 이야기와 따뜻한 관심은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다. 루페는 여전히 아빠를 만나고 싶었지만,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빠의 일부분을 찾은 것처럼 느껴졌다. 때때로 마르가리타가 자신의 부모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해 화 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다. 루페는 이 새로운 가정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자신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자신이 부모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 받는다 해도 마르가리타가 잃어버리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그녀가 알기를 바랐다. 필요하다면 루페는 마르가리타가 그걸 알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예전 메르세데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티에네스 게 쿠이다르 로 게 키에레스 만테넬.*”(Tienes que cuidar lo que quieres mantener)<sup>9)</sup> 그리고 루페

9)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해나가라.

는 할머니의 말씀대로, 소중한 것을 잘 돌보고, 지켜 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



## 6. 감작 선물

어느새 가을이 왔고,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마지는 아침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초콜라테 칼리안테(*chocolate caliente*)<sup>10)</sup>와 판달세이(*pan dulce*)<sup>11)</sup>를 먹으면서 시작할 수 있어 매우 기뻐다. 루페가 함께 살아 좋은 점들 한 가지 꼽는다면 그건 바로 엄마가 예전보다 자주 멕시코 음식을 만들어 준다는 점이다. 사실 인정하기 싫긴 했지만 - 예전에 마지는 미국음식을 먹어야한다고 강력히 말하곤 했었다- 마지는 엄마가 만들어 주는 멕시코 요리를 무척 좋아했다.

“마지, 루페에게 화요일과 목요일 방과 후에 있는 포크로리코(*folklórico*)춤 수업을 들어도 좋다고 허락했단다,” 엄마는 영어로 느리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마지, 네가 루페를 기다려 주면 좋겠구나. 집에도 함께 걸어 올수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숙제 할 수도 있잖니.”

마지는 판달세이를 먹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엄마말대로 한다면 자신의 생활 리듬은 깨지게 된다고 말해야할까? 마지는 머릿속 생각을 엄마에게 말하려다 한 번 더 생각해보기로 했다. 사실 집에 일찍 온다고 해서 좋은 점은 없다. 마지는 몇 달 전까지 종종 그래왔던 것처럼, 리즈와 오랜 시간 통화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통화를 할 때마다 리즈는 항상 ‘숙제를 해야 한다’ 또는 ‘친구랑 놀고 있는 중이다’라면서 재빠르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만약 엄마 말대로 한다면,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여유롭게 책을 고를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에게 있어 좋은 책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었다.

---

10) 따뜻한 코코아 음료

11) 멕시코와 라틴아메리카에서 먹는 빵

“알겠어요,” 마지는 엄마의 미소를 기대하며 말을 계속 이어갔다. “엄마, *판달 세이* 정말 맛있어요.”

루페가 이미 현관 앞에 나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는 식탁에서 일어났고, 작별인사를 위해 엄마 옆에서 잠시 멈춰 고개를 들었다. 엄마의 부드러운 입술을 타고 마지의 뺨으로 전해진 입맞춤은 학교 가는 길 내내 마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그날 존스 선생님은 두 가지 중요한 발표를 하셨다. 첫 번째는 전학생이 왔다는 것이었다.

마지는 빠르게 마음속으로 빌었다. *제발, 여학생이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초등학교 졸업을 위해 학생들은 마지막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도날드슨 교장선생님이 교실에 오셨고, 카밀리라는 금발의 키 큰 여학생을 소개하셨다.

*제발, 제 짝이 되게 해주세요,* 마지는 또 한 번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루페가 앉았던 빈자리를 쳐다보았다.

마치 마지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선생님은 카밀리에게 마지 옆의 빈자리에 앉으라고 하셨다.

*다행이다!* 마지는 생각했다. *아, 이제 존과 피터의 바로 옆은 아니다.*

카밀리는 자리에 앉으며 마지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 나는 카밀리라고 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 나는 마지야,” 마지도 카밀리를 향해 안도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는 생각했다. *정말 운 좋은날이야. 저 아이는 정말 괜찮은 아이 같아.*

전학생에 대한 소개가 끝나자 선생님은 졸업 프로젝트에 대한 말을 이어갔다.

“작년에 너희 모두 에세이를 썼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너희는 에세이를 계속 써야한다. 하지만 올해 너희들이 써야할 에세이는 조금 더 특별한 목적을 담고 있단다. 이 프로젝트를 카밀리도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쁘단다.

“너희 모두는 각자의 관심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여 글을 쓰기 위해 에세이

를 활용해야 해. 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너희 각자가 진심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써야하는 거야.”

선생님은 최종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지금부터 여러 가지를 기록하고 심사숙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학생 모두는 그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또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습득했는지에 대한 에세이를 써야한다. 아니면 시(詩) 또는 예를 들어, 미래의 자신이나 중학교를 마친 자신에게 쓰는 편지 같은 것들을 써야한다.

“노트에 너희가 맨 먼저 드는 생각을 적는 것도 좋아, 에세이가 바로 출발점이니깐. 그 후 너희가 쓴 것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또한 스스로에게 자문도 해봐야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새 노트를 나눠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가 정말 좋아하는 주제를 선택하렴. 그리고 왜 그게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지 생각해봐.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은 좋지 않은지? 다른 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무엇을 바꾸고 싶지?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니?”

“아직은 에세이 노트를 서로 공유해선 안 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단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매일 매일 쓰는 거야.”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과제와 관련된 생각을 적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새로운 질문을 추가하라고 하셨다.

선생님은 점심시간 종이 울릴 때까지 말을 이어가셨다. 선생님은 서둘러 말을 덧붙이셨다. “나는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알려줄 수 없어. 대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쓰고, 또 쓰고, 다시 써봐야 해. 그렇지만 너희들이 정말로 쓸 준비가 되고, 쓰기 시작했다면 언제든지 와서 질문해도 좋단다.”

학생들은 점심을 먹으러 가기 위해 줄을 섰다.

“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뭐야?” 카밀리가 줄을 서며 말했다.

“잘 모르겠어, 글썄.” 마지는 대답했다. 마지는 선생님이 설명이 너무 길었다고 생각했다. 마지는 졸업 과제에 대해 감이 오지 않았고,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카밀리는 마지의 시큰둥한 반응에도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갔다. “나는 돌고래에 대해 쓸 거야.” 카밀리의 확신에 찬 말에 마지는 깜짝 놀랐다.

“정말?” 마지는 놀라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응, 정말로.” 카밀리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돌고래가 너무 좋아.” 카밀리가 다시 미소 짓자, 마지의 얼굴에도 미소가 피어올랐다.

## 7. 돌고래와 함께하는 일상

몇 주 동안 마지는 돌고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카밀리는 매우 진지했다. 그리고 운 좋게도 매우 즐기고 있었다.

“마지, 그거 알아?” 카밀리는 말을 꺼내고, 곧 여러 흥미로운 이야기에 대해 늘어놓을 것이다. 카밀리는 거대한 범고래서부터 1미터 20센티미터에 불과한 돌고래가 있다는 사실과, 그 종류가 대략 30가지 이상 된다는 등의 야생 돌고래와 관련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우리가 수족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고래는 아틀랜틱 청백 돌고래이지만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종류는 머리코 돌고래라고 했다. 머리코 돌고래는 가장 작은 돌고래 중 중 하나이며, 엄청나게 빠른 헤엄 속도와 탁월한 점프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모든 바다뿐만 아니라 강에도 돌고래가 살고 있으며, 남미의 아마존 강에는 분홍돌고래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그 중 가장 매혹적인 점은 돌고래들이 모계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무리의 가장 우두머리 돌고래는 많은 새끼를 낳은 나이든 암컷인 반면 나이든 수컷들은 돌고래 사회 계층의 하단부에 위치한다고 한다.

마지는 특히 돌고래가 태어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다. 작은 돌고래들은 상어에게 잡혀 먹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암컷 돌고래들이 출산을 앞둔 암컷 돌고래를 둥글게 에워싸며 보호한다. 새끼 돌고래가 태어나면 엄마 돌고래는 새끼를 물 표면으로 데려가기 위해 새끼 아래에서 헤엄치며, 갓 태어난 아기 돌고래는 다른 동료 돌고래들의 보호 속에 처음으로 접하는 신선한 공기를 들이 마실 수 있게 된다.

카밀리는 전 세계의 해양생태 공원에 있는 돌고래와 범고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또한 과거에 방문했었던 공원들의 수온, 조련사들의 업무 순서 및 과정

그리고 돌고래가 받는 행동 교육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마지는 카밀리의 이야기가 좋았다. 그녀의 열정이 자신에게까지 전달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마지도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음악과 책에 대한 이야기를 카밀리와 하기 시작했다.

카밀리와 학교 식당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던 어느 날, 마지는 문득 카밀리와 대화하는 것과 루페와의 대화가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마지가 하는 스페인어처럼 루페의 영어실력은 여전히 부족했다. 마지와 루페 모두 단순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정도의 한정된 단어 및 단순한 문장들만 알고 있었다. 이러한 단어와 관용구들은 서로의 일상생활을 알기엔 충분했지만, 마지가 카밀리의 대화처럼 심연의 사고와 감정들을 공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루페가 우리 교실에 있을 때 분명 외로웠겠지, 마지는 생각했다. 루페가 지금의 이중 언어 반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다. 또한 루페가 그녀의 반에서 단짝친구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 동안 존과 피터는 루페를 빌미로 마지를 계속 놀렸다. 존과 피터는 처음엔 카밀리가 다른 학생들보다 키가 큰 것을 가지고 놀려댔지만, 카밀리가 웃어버리며 신경 쓰지 않자, 금세 놀리던 것을 그만두었다. 지금 그 아이들은 자신들에게 관심도 갖지 않는 여학생을 괴롭히는 것보다 미식축구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카밀리는 자신의 졸업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 매우 확고했다. 하지만 졸업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고, 수없이 많은 질문들과 씨름을 하고 있었다. “내가 조련사 또는 해양 생물학자가 되어야만 할까?” “사육되는 돌고래도 새끼를 낳아야만 하나? 또는 “만약 돌고래가 다친 경우에 짧은 기간 동안 가두어 돌본 후, 가능한 빨리 야생으로 돌려보내야만 하는 건 아닐까? “가까운 거리에서 수족관 돌고래를 구경하는 것이 정말로 야생돌고래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증대에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해야 어업종사자들이 돌고래를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카밀리는 이 모든 질문들을 안고 씨름하며, 프로젝트가 나아가야하는 방향성들을 주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대신, 자신의 노트 한 장 한 장을 채워 나가며, 무작정 쓰고, 또 써내려갔다. 반대로 마지는 거의 쓰지 못하고 있었다. 몇몇

생각들을 써보긴 했지만, 더 이상 어떻게 글을 써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마지는 자신에 대해, 그리고 미국인이 된다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글을 쓸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또한 마지는 자신에게 있어 가족이 매우 중요하며, 집에서 학교에서도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는 죄책감이 들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잘 쓸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다.

루페가 영어를 잘 못하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어떤 문제도 없었기에 마지는 더 이상 루페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루페의 존재는 여전히 마지의 마음을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었다. 또한 마지는 가족과 더 가까워지기는 커녕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마지는 항상 집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엄마를 떠올리며, 엄마를 너무 많이 그리워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마지는 이에 대한 글을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감이 오지 않았다.

부모님은 갑자기 멕시코 출신임을 무척이나 강조한다. 어떻게 해야 내가 바라던 미국인의 모습이 되면서도, 계속 부모님과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 미국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전보다 더 불분명해 지긴 했지만, 언뜻 생각해봐도 단순히 출생지, 소유하고 있는 신분증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었다.

고민 끝에 마지는 존스선생님의 말대로 해보자는 결심을 한 후, 떠오르는 질문들과 생각들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의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이 정리되길 바랐다.

*나는 미국인이다!*

*나는 때때로 완전하게 미국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루페가 언젠가는 미국인이 될 수 있을까?*

*왜 부모님은 미국인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그들은 미국에 살지만 실제로는 멕시코인인 걸까?*

*부모님은 루페가 멕시코사람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친밀감을 느끼는 걸까?*

*나는 루페가 정말 좋다.*

나는 때때로 루페에게 미안하다.

나는 때때로 루페의 행동이 존경스럽다

나는 때때로 루페가 질투난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바뀔 수 있을까



## 8. 도서관에서

카밀리는 화요일과 목요일 수업을 마치고, 마지가 루페를 기다리는 동안 함께 있어주었다. 주로 그 시간동안 마지와 루페는 학교도서관에 가곤 했다.

어느 날 도서관에 파지오니 사서선생님이 루페와 마지에게 물었다. “너희들 부모님께서 수업 마친 후에 학교에 있어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니?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내 일을 조금 도와줄 수 있겠니?”

마지가 대답할 겨를도 없이 카밀리가 말했다. “정말 좋아요. 인터넷으로 가끔 자료를 찾아봐도 될까요? 돌고래 같은 거요.”

사서선생님은 미소 지었다. 카밀리는 이미 도서관에 있는 돌고래 관련 책을 모두 확인한 상태였다.

그 이후로 마지와 카밀리는 일주일에 두 번 씩 사서선생님의 일을 도왔다. 반납된 책들을 다른 이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자리에 놓는 일을 주로 했다. 또 가끔은 책들이 전부 제자리에 꽂혀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도 했다.

파지오니 선생님은 마지와 카밀리에게 고마워했고, 시간이 나면 책을 읽으라고 항상 말씀하셨다.

카밀리는 자연에 관한, 특히 야생에서 살아남기 같은 책을 좋아했다. 예를 들면 너구리 한 마리와 함께 야생에서 여러 달 동안 생활한 소년의 이야기를 그린 ‘나의 산에서’, 줄리라는 이름의 소녀가 늑대와 친밀감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을 그린 ‘줄리와 늑대’, 그리고 추운 겨울 생존기를 다룬 ‘손도끼’같은 책을 좋아했다. 하지만 카밀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푸른 돌고래 섬’이라는 책이었다. 카밀리는 마지에게 자신이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고, 그 곳에 사는 모든 생명체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상상을 한다고 말했다.

마지는 모험과 관련된 책을 찾아보았다. 마지는 ‘살라멘테스트론’이란 책을 발견했고, 책속에 묘사된 세계에 매료되어 모든 ‘붉은 성벽’<sup>12)</sup> 시리즈를 찾아 읽고, 사악한 여우들로부터 도망쳐 붉은 성벽 사원에<sup>13)</sup> 살고 있는 작은 동물들의 모험에 빠져들었다.

“책 속에 나오는 말들이 어렵진 않아?” 어느 날 오후, 카밀리는 마지가 읽고 있는 페이지를 보며 물었다.

“조금 어렵긴 한데, 찾아보면서 읽으니깐 괜찮아. 사전은 나에게 있어 오랜 친구 같은 거야,” 마지가 대답했다.

어려서부터 마지는 사전을 자주 찾아보곤 했다. 마지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설명해 주지 못하는 영어단어들이 있을 때, 그리고 아빠도 집에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면, 종종 사전을 찾아보곤 했었다. 처음 아빠는 휴대용 사전을 사주셨지만, 글자가 너무 작아 보기가 어려웠다. 마지가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자 아빠는 크고 두꺼운 사전을 다시 사주셨다. 마지가 사전을 활용하여 단어 찾는 것이 익숙해질 때쯤, 자신이 사전 찾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전 찾기는 마지에게 있어 보물찾기 같은 게임이 되었고, 마지가 찾은 새로운 단어들은 미래를 위해 비축해놓은 보물과도 같았다.

“정말 너처럼 사전 찾는 거를 좋아하는 아이는 본 적이 없어,” 카밀리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것이 좋아, 생각해보고, 이해하고.”

마지는 미소 지었다. 마지막으로 친구와 놀면서 재미있게 보냈던 때가 언제인지 잘 기억나지 않았다. 마지와 카밀리는 루페가 *바일레 포크로리코(baile folklórico)*<sup>14)</sup> 춤 연습을 마치고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점점 더 긴 시간을 도서관에 보냈다.

처음 몇 번은 루페가 춤 연습을 마친 후, 밝게 상기된 표정으로 도서관에 오면 마지는 재빨리 카밀리에게 작별인사를 한 후 집에 갈 채비를 하였다. 카밀리에게 루페를 부끄러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싫었다.

12) 영국의 소설가 브라이언 자크(Brian Jacques)가 지은 판타지 소설

13) 붉은 성벽 시리즈의 내용 속 등장하는 빨간 사암으로 만들어진 성전. 이야기의 중심 배경이 됨

14) 포크댄스, 스페인의 향토무용

그러던 어느 날, 마지가 카밀리에게 막 작별인사를 하려던 찰나, 갑자기 카밀리가 루페에게 웃으며 인사를 했다. “안녕, 루페”

루페는 카밀리의 다정한 인사에 깜짝 놀랐다. 당황한 루페는 땅바닥을 응시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루페가 정신을 차리고, 인사를 하려던 찰나, 마지는 재빨리 루페의 팔을 잡아 도서관 밖으로 나왔다. 그 길로 마지는 곧장 집으로 걸어갔고, 그 뒤를 루페는 말없이 따랐다.

루페는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내 사촌은 내가 영어를 못해서 부끄러운 걸까? 아니면 내가 이 곳에 집이 없고, 얽혀살기 때문인 걸까?

루페는 마지가 자신이 그녀의 집에 살면서, 그녀 부모님에게 사랑 받는 것에 대해 억울해하고, 화를 낼까봐 항상 두려웠다. 몇 일전, 로드리게스 선생님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루페는 지금 마지의 기분이 어떨지 걱정 되었다. 자신이 만약 좋은 집과 엄마 아빠를 모두 가진 행복한 아이였다면, 기꺼이 그렇지 못한 사촌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마지도 그렇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집으로 걸어가는 긴 시간동안 루페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지만, 걱정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 9. 크리스마스? 나비다드(Navidad)?

크리스마스는 마지가 일 년 중 가장 좋아하는 날이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것이라면 모두 좋았다. 예를 들어, 거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는 전구 불빛,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캐럴, 알록달록한 선물 포장지 같은 것들이다. 마지가 특히 좋아하는 일은 부모님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기 위한 나무를 사러가고, 그 곳에서 아빠에게 키가 가장 큰 나무를 사달라고 조르는 것이다.

크리스마스는 마지를 진짜 미국인인 것처럼 느끼게 했다. 엄마가 가끔씩 감미로운 목소리로 스페인 노래를 부르거나, 스페인 라디오 방송을 들을 때면, 마지는 “루돌프 사슴코”, “울면 안 돼” 같은 노래를 고래고래 소리 지르듯이 불렀다. 또한 잠을 청할 때도 “고요한 밤”을 흥얼거리곤 했다. 이러한 노래 하나하나가 마지에게는 보물과도 같았다. 모든 보물이 그러하듯, 마지는 이러한 캐럴을 열심히 익히고 불렀다.

마지는 어릴 적 다른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부르던 노래를 자신만 알지 못했던 그 때를 기억한다.

“엄마, 저희만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다고요!” 마지는 울며 소리쳤다. “엄마는 그리고 왜 항상 스페인 라디오만 듣는 거죠? 이러면 제가 여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어떻게 배우라고요?”

엄마는 너무 속이 상해 울음을 터뜨리셨다. 마지는 이때 엄마가 우는 것을 처음 보았고, 가슴이 너무 아팠다.

며칠 후, 아빠는 마지를 데리고 나가, 작긴 하지만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나무를 사주셨다. 그리고 엄마는 나무에 달수 있는 장신구들을 사주셨다. 며칠 후 크리스마스에 마지는 트리 아래에서 작은 CD플레이어와 2장의 크리스마스 캐럴

CD를 발견했다. 그 후 몇 달간, 다시 말해 크리스마스가 지나서 아무도 캐럴을 듣지 않을 때도, 그리고 다음 크리스마스 오기 한참 전부터 캐럴 CD를 듣고, 또 들었다. 그리고 또 다시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쯤, 가사를 잘 이해하진 못했지만, “호랑나무 가지로 연회장을 장식하세요”등의 캐럴을 다른 아이들과 함께 따라 부를 수 있었다.

캐럴은 마지가 이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임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알리고, 입증시켜주는 진짜 마지의 노래가 되었다. 마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찾아보았고, 지금은 모든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되었다.

크리스마스과 관련된 것 중 또 다른 좋은 점은 바로 아빠가 며칠간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 때 마지의 가족은 특별한 것을 하곤 했는데, 유니언스퀘어<sup>15)</sup>에 거목, 화려하게 장식된 상점의 쇼윈도 그리고 아름답게 꾸며진 집들을 보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드라이브를 하는 것이었다. 작년에는 엠바카데로센터<sup>16)</sup>의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도 탔다.

다른 무엇보다도 크리스마스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준다. 마지는 부모님과 함께 미국인의 방식으로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 자신이 부모님을 진정한 미국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루페와 함께 하는 이번 크리스마스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 분명해보였다. “우리는 루페가 이곳이 고향처럼 느끼도록 해주어야 해. 크리스마스 때 집을 떠나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니까,” 엄마는 말했다. 맞는 말이지만, 이는 마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변하게 된다는 뜻이다. 지금 엄마와 아빠는 *나비다데스(Navidades)*라 불리는 멕시코의 크리스마스에 대해 추억하느라 무척이나 바빠 보였다. 엄마는 *빌란시코스(villancicos)*라는 스페인어 캐럴을 계속 흥얼거렸고, 루페에게 함께 부르자 하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집은 마지와 루페에게 정답게 스페인어로 말하는 손님들로 북적였고, 마지는 그들의 말이 너무 빨라 거의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최악은 엄마 아빠가 크리스마스 트리 대신 *나시미엔토*

15) 유니언 스퀘어(Union Square)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광장

16)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의 쇼핑센터

(*nacimiento*), 즉 그리스도 성탄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야 베라스 게 린도(*¡Ya verás qué lindo!*), 너도 알게 될 거야! 정말 멋진 것 같구나!” 엄마는 마지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던 거실 한쪽에는 갈색 고기포장 종이로 포장된 음식 상자들이 쌓여있는 것을 본 마지는 화내며 말했다. “트리가 없는 크리스마스가 어디 있어요,” 마지는 화가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꽁 닫았다.

다음날 마지가 잠에서 깬을 때, 집안 가득 초콜라테 칼리안테(*chocolate caliente*)와 쥬로스(*churros*)냄새가 났다. 그녀는 잠시 동안 침대에서 스트레칭을 한 후,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청바지와 터틀넥 스웨터를 입었다.

“쥬로스 이 초콜라테(*Churros y chocolate*)만한 성능 좋은 알람시계가 없지,” 아빠는 식탁에 음식을 놓으면서 말씀하셨다.

라디오에서는 “펠리츠 나비다드”(*Feliz Navidad*)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엄마는 루페가 돌로레스 숙모의 선물이라며 가져온 수놓아진 식탁보를 깔고 계셨다. 그리고 식탁 중앙에는 캘러꽃을 가득담은 화병을 놓으셨다.

“디에고 리베라<sup>17)</sup> 같지 않아?” 루페는 마지에게 물었다. 루페는 보통 마지의 부모님에게는 스페인어를 사용하지만, 마지에게만은 꼭 영어를 사용했다.

마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루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루페는 식탁에서 일어나, 황급히 주방을 나갔다.

“무슨 일이니?” 엄마는 걱정 섞인 목소리로 물으셨다.

“저도 모르겠어요,” 마지는 대답했다. 그리고는 쥬로스를 먹긴 했지만, 루페가 몹시 걱정이 되었다. 루페는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잠시 후, 루페는 디에고 리베라가 그린 하얀 캘러꽃이 가득 찬 화병 그림이 있는 책을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져왔다. 루페는 자신감과 기쁨이 가득 찬 표정이었다.

마지는 엄마가 정성껏 준비한 식탁 장식과 그 책의 그림을 번갈아 보았다. 그 그림은 매우 짙고 강렬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마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것을 훌륭한 작품으로 탈바꿈시킨 것이 너무나도 놀라웠다. 사실

17)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 1886년 ~ 1957년)는 멕시코의 화가

이전에 루페가 그 책을 보고 있는 것을 종종 보았다. 루페가 그 책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마지는 엄마가 주방 정리하는 것을 도왔고, 순간 골똥히 생각에 잠겼다. 디에고 리베라가 멕시코 화가이기 때문에, 루페는 자신이 멕시코인 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다. 마지는 멕시코는 온갖 문제가 들끓고, 국민 누구도 모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설거지가 끝날 때 쯤, 루페는 마지에게 다시 말을 걸었다. “이리 와봐, 마르가리타, 우리 같이 *나시미엔또*를 멋지게 만들어 보자!”

츄로스 이 초콜라테의 달콤함이 마지의 입속에 계속 맴돌고 있었고, 자신도 모르게 루페를 따라 거실로 나갔다.

갈색 고기포장용지로 싸여있는 상자들은 마치 사막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엄마는 밀 싹이 심어진 작은 항아리들로 쟁반을 채워 바닥에 놓았고, 아빠는 소형 선풍기를 가져오셨다. 선풍기가 만들어낸 부드러운 바람이 어린 초록 밀밭에 생명을 불어넣으며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혹시 이거 안 좋아해?” 루페가 물었다. “혹시 호수 만들어보고 싶어? 거울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 음,,그리고 강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그러니깐 *빠벨드 알루미니오(papel de aluminio)*를 가지고.”

“알루미늄 호일,” 마지가 대신 영어로 말해주었다. 사실 루페가 오늘처럼 영어 문장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았다. “좋아, 같이 해보자!” 마지는 대답했다.

마지와 루페는 작은 집들의 위치를 옮겨가며, 거리의 풍경들을 계속해서 바꿔 보았다. 또 구겨진 고기포장용 종이로 만든 협곡에 양치기와 양떼를 놓고, 아래 쪽에 놓았다 금방 또 다른 위치로 바꿔 놓아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고심했던 부분은 동방박사들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루페는 동방박사를 *로스 레이예스 마고스(los Reyes Magos)*라 불렀고, 마치 자신의 친구인거마냥 말을 걸곤 했다. “이 사람은 멜카이어,” 루페는 낙타를 타고 있고, 가장 나이 들어 보이는 인형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아라비아에서 왔어.” 마지는 말을 계속 이어갔다, “이 사람은 카스퍼, 가장 젊은 사



람이고, 자신의 말을 타고 페르시아에서 건너왔어.”

마지는 각각의 피규어들이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아까와는 다르게 보였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건 누구야?” 루페가 물었다. 마지가 대답할 겨를도 없이 루페가 또 말을 이어갔다. “난 벨사사르, 코끼리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왔어, 나도 정말 코끼리를 한번 타봤으면 좋겠어.”

마지와 루페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몇 시간을 함께 공들여 작업했다. 마지는 어차피 올해는 크리스마스트리를 가지지 못한다면, 지금 만들고 있는 *나썬미 엔또*를 최대한 아름답게 꾸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는 처음해보는 프로젝트를 위해 열심히 손을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자신의 특별한 크리스마스는 이미 사라져버렸다. 이제는 자신과 엄마 아빠만의 크리스마스가 아니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지금까지와는 너무나도 달랐고, 마지는 그 곳에서 상실감을 느꼈다. 그리고 루페가 마지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날을 함께 지내야함을 의미했다. 하지만 마지는 자기도 모르게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즐기고 있었다.

아마도 마지의 마음속에는 포인세티아<sup>18)</sup>뿐만 아니라 켈러꽃을 위한 화분도 있었던 것 같다.

그 날, 마지는 지금까지 어색해서 루페에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처음으로 했다. 그것은 바로 잠자리에 들기 위해 엄마 아빠를 꼭 껴안고 입을 맞춘 후, 루페 또한 꼭 껴안아 준 것이었다.

---

18) 포인세티아(화분에 심어 보통 실내에서 기르는, 빨간 나뭇잎이 꽃처럼 보이는 열대 식물)



## 10. 진정한 크리스마스 선물

루페가 고향을 떠난 뒤 맞이한 미국에서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을 매우 새롭게 느끼도록 했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리운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 멕시코에서는, 도시전체를 감도는 특별한 분위기, 작은 변화들이 서로 어우러져 만드는 조화로움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정취가 크리스마스 때에 함께 더해졌었다.

쉽게 떠오르는 것을 말해보자면, 매우 특별한 아이가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양치기 이야기를 다룬 전통극인 *라 페스토레라(La pastorela)*가 있다. 마을 주민들은 매년 크리스마스 때 이 연극 공연을 했고, 루페는 매번 즐겁게 관람했었다.

광장에서는 대규모 축하행사가 열리는데, 그때 화려한 의상을 입고, 큰 깃털 왕관들을 쓴 *단산띠스(danzantes)*<sup>19)</sup>들이 오랜 시간 춤을 추곤 했다. 무엇보다도 어떤 놀라운 것들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이 넘쳤다.

12월 31일에 열리는 광장의 불꽃놀이는 온 도시를 밝게 비춰주었고, 화약 특유의 냄새를 그 후로 며칠 동안 도시에 남겨놓았다.

모든 사람들이 1월 6일 *엘 디아 데 로스 레이스 마고스(el Día de los Reyes Magos)*<sup>20)</sup>를 기다렸는데, 그 날이 되면 동방박사가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루페 또한 좋은 장난감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6일 아침에 아이들이 받은 선물은 그 종류와 상관없이 그 후로 한동안

19) 댄서, 무용수

20) 예수 탄생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아기 예수를 경배한 세 동방박사를 기념하는 날

큰 기쁨을 주었고, 다양한 놀 거리 및 웃음을 안겨주었다.

캘리포니아에서 경험하고 있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곳의 크리스마스 또한 확연히 달랐다.

크리스마스 며칠 전, 마지는 어떤 캐럴을 찾아야 한다며, 마지가 가지고 있는 CD들을 조바심 내며 살폈다.

“정말 아이팟(iPOD)을 갖고 싶어,” 마지는 말했다. “산타할아버지, 아이팟을 갖게 해주세요. 이 CD들은 다 구식이라고요.”

루페는 가만히 지켜보았다. 사실 마지가 이해가 안됐다. 마지는 정말 많은 CD를 가지고 있었다. 마지는 거실에 있는 휴대용 카세트를 이용해 CD를 들었다. 이 카세트는 휴대가 간편하고, 헤드폰도 있어 마지가 좋아하는 어떤 음악이든 들을 수 있었다.

가끔 마지가 헤드폰을 빼고 음악을 들을 때면, 루페 또한 이를 들을 수 있었다. 루페는 그 음악들을 듣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하지만 루페가 놀란 것은 마지가 노래를 건너뛰고, CD를 계속해서 바꾼다는 점이었다. 사실 루페는 하나의 노래를 끝까지 듣는 것을 좋아했다. 루페가 노래의 가사를 조금 이해하려하면, 마지는 다음 곡으로 건너뛰거나 다른 CD로 바꾸기 위해 정지 버튼을 눌렀다.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면 마지는 이미 다음 들을 CD를 찾고 있었다.

루페는 CD플레이어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여기서 느끼고 있는 거야, 모든 것이 빨리 감기 버튼처럼 움직이지. 따라잡았다고 생각하자마자, 또 새로운 어떤 걸 배워야만 하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험 보다 더 빠르게, 계속 앞만 보고 가야하는 것은 썩 좋은 기분이 아니었다. 하지만 루페는 미소 지었다. 이 모든 것들의 상황을 이해하면, 나쁜 감정들도 좋아지기 마련이다. 학교 영어 수업시간에 했던 역할극의 첫인사를 흉내 내며, 루페는 생각에 잠겼다. *안녕, 나는 루페야, 빨리 감기 상태고, 계속해서 바뀌는 CD들을 위한 CD플레이어지.*

크리스마스 아침, 마지는 아이팟 선물을 받지 못했다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새 책가방, 엄마와 쇼핑물에 갔을 때 예쁘다고 생각한 스웨터 그리고 롤러블레이드 같은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었다. 하지만 엄마 아빠를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애써 행복한척 하려 애썼다.

반면, 루페는 선물 상자를 하나하나 열 때 마다, 기쁨의 탄성을 냈다. “지금껏 이렇게 멋진 선물은 받은 적이 없어요!” 붓, 물감과 팔레트가 든 나무 화구 상자를 열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스페인어로 말했음에도 마지는 루페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마지는 자신이 아이팟을 받지 못한 것이 루페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은 지금까지 마지가 원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해주려 애썼다. 하지만 지금은 두 명에게 선물을 사줘야하고, 부모님 입장에서 전보다 부담이 되는 것은 틀림없었다.

하지만, 루페가 기뻐하는 것을 보자, 갑자기 아이팟이 더 이상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루페는 마지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잠시 가만히 있어줄 수 있는지를 마지에게 물었다, “물론이지” 마지는 흔쾌히 대답했다. “잠깐만, 들을 만한 음악이 있는지 찾아볼게.” 마지가 CD를 카세트에 넣고 루페의 그림 모델을 하는 동안, CD의 노래들이 한곡한곡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나왔다.

## 11. 돌고래 조련사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고 그 다음 날, 마지와 카밀리는 도서관에 반납된 책이 산처럼 쌓여있는 것을 보고, 둘이 동시에 외쳤다. “와우!” 하지만 마지와 카밀리는 이 일이 좋았고,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의 탄성은 걱정보다는 흥분된 감정 표출에 가까웠다. 둘은 재빨리 스웨터를 벗고, 일을 시작했다.

마지는 카밀리의 피부가 구리 빛으로 변하고, 머리색이 훨씬 밝아진 것이 믿기지 않았다.

“우리 가족은 플로리다 할머니 댁에 갔었어. 그리고 플로리다 키스제도<sup>21)</sup>도 갔지,” 산처럼 쌓인 책들을 정리하며 카밀리가 설명했다.

“거기서 돌고래랑 헤엄도 치고, 하루 동안 조련사가 되 보기도 했어,” 카밀리는 설명을 이어갔다.

“하루 동안 조련사가 되었다고?”

“응, 돌고래와 바다사자들이 있는 해양 생물 공원에서 하루를... 음, 정확히 말하면 오전을 보내는 거지. 실제 조련사들은 동물들이 소리를 내고, 물을 튀기고 입맞춤을 하는 등의 특정행동을 하게 만드는 지시 법을 가르쳐줬어. 그 후 실제로 조련사가 된 것처럼, 동물들에게 지시를 내리면 그들은 내 지시를 따라 행동했어.”

“정말? 네가 이 모든 것을 했다고?”

“그렇다니깐, 그리고 그 곳의 조련사들은 각각의 동물들을 위한 음식 준비 방법도 보여줬어. 그 곳에는 물고기를 보관하는 대형 냉장고들이 있는 큰 주방이

21)플로리다 반도 남단으로부터 서쪽으로 이어진 열도

있었는데, 정말 깨끗하더라. 거기서는 의사선생님들처럼 아주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하는데, 그 이유는 동물을 병에 걸리게 할 수도 있는 박테리아가 우리 손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야. 아, 그리고 각각의 돌고래, 바다사자의 이름과 몸무게를 적은 차트가 있는데, 그 이름 옆에는 몸무게에 따른 하루 권장 음식량이 적혀 있어. 보통 먹이는 정말 신선하고, 상태가 좋은 물고기와 오징어들이야.”

“응, 나는 물고기는 싫은데. 하지만 와우, 넌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마지, 너도 운이 좋아.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그러시는데, 너희 부모님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이번 일요일에 발레이오 디스커버리 킹덤<sup>22)</sup>에 데려가 주신대. 우리 부모님, 여동생 제시카와 콜렛 그리고 나, 이렇게 가게 될 거야. 사실 난 이미 여러 번 가본 적이 있어서, 그 곳에 있는 조련사들을 알고 있어, 아마 공연 중간에 잠깐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정말 이야?” 마지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다. 한 겨울에 금발머리와 검게 그을린 피부의 카밀리는 진짜 조련사 같았다. 그리고 지금 카밀리는 나를 해양 생물 공원에 데리고 가려한다!

불현 듯 루페가 떠오르며, 흥분이 순식간에 식어버렸다. “음...확실히 모르겠어. 정말 가고 싶은데, 엄마가,.. 아마도 엄마는...”

엄마가 루페도 함께 데려가길 원한다고 말하려 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엄마에게 한번 말씀드려봐. 참, 네 사촌도 데리고 와도 좋아.”

“정말?” 마지 번개를 맞은 것처럼 순식간에 흥분에 다시 휩싸였다. “루페도?” 마지는 루페를 함께 초대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다. 왜 루페를 데리고 와도 좋다고 했을까? “루페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응, 네가 루페도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부모님께 너희 둘 다 함께 가도 되는지 물어봤어. 물론, 루페가 말이 없긴 하지만, 틀림없이 루페도 돌고래를 좋아할 거야. 참, 걱정 마! 우리 아빠가 스페인어를 할 줄 아시거든. 아빠가 루페에게 말해주실 거야. 어쨌든 나도 스페인어를 배울 수도 있고. 사실 플로리다에 갈 때 마다, 친척들의 말이 잘 이해가 안돼서 너무 힘들었어.

22) 캘리포니아 주 발레이오의 놀이 공원

“친척들이 스페인어를 해? 왜? 너는...” 갑자기 마지는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음... 친척들 중 대략 반 정도는 스페인어를 해. 아빠 쪽도 마찬가지야. 플로리다의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 그리고 우리 할머니도 쿠바사람이셔. 우리 할아버지는 페루 출신이시지.” 카밀리는 무덤덤하게 설명했다.

마지는 카밀리를 마치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쳐다보았다. 금발 머리와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스페인어의 고유 악센트도 없는 카밀리가 라틴계 아버지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카밀리는 자신이 미국인이지만, 친척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네가 완전한 미국인인줄 알았어.” 마지는 놀라며 대답했다.

“너무 웃기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카밀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미국인이야, 그리고 네가 우리 가족 중 절반이 다른 국가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기 전과 같은 사람이고.” 미소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자, 내가 설명해볼게. 미국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람들이 잊어버렸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가족들은 모두 미국 출신 인척 할 수도 있지만, 이 나라 사람들의 조상은 대부분 다른 국가에서 왔어. 처음부터 미국에 있던 사람들은 아메리카 인디언뿐이야! 그리고 자신들은 여기 출신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가족들보다 네 멕시코 가족이 그리고 내 페루 가족이 더 많은 수의 아메리카 인디언 조상을 가지고 있어”

“왜 지금까지 네 가족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 아까보다 더 혼란스러운 기분을 느끼며 카밀리에게 물었다.

“글쎄,, 가족의 출신이 나한테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음, 그러니깐, 그런 뜻은 아니고. 사실은 내가 스페인어를 하지 못해서 부끄러웠던 것 같아. 부모님은 왜 어릴 때 스페인어를 안 가르쳐 주셨는지 모르겠어. 지금 배우려고 하니깐 너무 힘들어.”

지금, 모든 잘못된 이유들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들려! 마지는 생각했다.

마지는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존스선생님은 계속해서 글쓰기가 생각 정리에 도움을 줄 것이라 말씀하셨다. 어쩌면 이 감정에 대한 것을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무엇을 의미할까?” 마지는 이렇게 질문을 써보고 답을 찾을 것이다.

루페가 춤 연습을 끝내고 도서관에 왔을 때, 뺨은 선홍색을 띠고 있었고, 이마에는 여전히 땀이 송골송골 맺혀있었다. 루페는 방해하지 않으려 하는 것처럼, 문 앞에 멈춰 섰다.

“올라 루페 꼬모 에스따스(*Hola, Lupe, ¿cómo estás?*)? 카밀리는 플로리다에서 사용했던 스페인어 문장을 활용해 루페에게 말했다.

루페는 미소를 보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카밀리가 스웨터를 입으며 말했다. “마지, 오늘 꼭 부모님께 디스커버리 킹덤에 너랑 루페가 가도 되는지 여쭙봐, 그리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가는 것도.”

루페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루페는 ‘자신도 함께’ 라는 말에 너무나도 기뻐했지만, 마지에게 물어본 후, 카밀리의 초대가 정말 사실인지를 아닌지를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한편, 마지는 네 가족 절반이 스페인어를 한다는 것을 지금껏 나한테 말하지 않았다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카밀리를 향해 머리를 살래살래 흔들었다. 카밀리는 마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미소를 띠며 말했다. “마지, 우리 아빠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 ‘중요한 것은 네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후에도 배워야할 많은 것이 있다는 사실이야.’ 내일 봐!”

## 12. 코끼리를 탈 수 있다니

해양생태 공원에서 보낸 주말은 생각했던 것처럼, 아니 생각보다 훨씬 완벽했다. 카밀리의 부모님은 돌고래와 해양공원을 정말로 좋아하셨다. 제시카와 루페는 금세 잘 어울렸고, 죽이 잘 맞는 친구가 되었다. 카밀리의 막내 동생 콜렛은 동물을 무척이나 좋아했고, 카밀리의 부모님은 에너지 넘치는 콜렛을 지켜보며 흐뭇해 하셨다. 카밀리의 가족은 이미 공원에 여러 번 왔었기 때문에 공연 스케줄과 세부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카밀리의 아버지와 루페는 서로 스페인어로 대화했고, 마치 루페가 마지의 부모님과 그랬던 것처럼 대화 중에 간간히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카밀리와 제시카도 짧은 문장들을 사용해 스페인어로 말했고, 마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국어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마지도 이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스페인어가 유창하지는 않지만, 좋은 발음을 가진 것이 자랑스러웠다.

루페는 마지의 집에서 만들었던 *나시미엔또*에 대한 이야기를 카밀리의 아버지에게 했고, 카밀리의 아버지는 자신이 어렸을 적에 크리스마스와 1월 6일 *엘 디아 데 로스 레이스 마고스*를 함께 축하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동네에서 우리만 선물을 두 번 받았지! 크리스마스 선물이 지겨워질 때쯤, 곧 새로운 선물을 받았지,” 카밀리의 아버지는 말했다. 그리고는 웃으며 말을 계속 이어가셨다. “사실 그 장난감들이 실제로 지겨워진 것은 아니었어. 방과 방 사이를 연결하며, 집안 전체를 운행할 수 있는 장난감 기차와 자동차 트랙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 트랙 주변으로 마을과 농장을 세웠단다. 사실 집이 아니라 놀이터 같았어!” 마지는 선물을 두 번 받는다는 말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다.

카밀리와 마지는 조금 앞서 걸어갔고, 몇몇 공연들을 오롯이 둘만 관람할 수



있었다. 또 가끔은 카밀리의 부모님과 콜렛은 아래서 기다리고, 마지와 루페, 카밀리와 제시카는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기도 했다. 그리고는 다시 함께 구경을 했다. 돌고래를 보았을 때, 마지는 카밀리가 왜 그토록 좋아하는지 이해가 되었다. 돌고래들은 묘기를 부리기 위해 위풍당당한 몸짓으로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랐다가 다시 미끄러지듯 물을 가르며 헤엄쳐 나아갔다. 돌고래들은 자기들끼리 장난을 치기도 했고, 수족관 유리를 사이에 두고 카밀리와 교감하기도 했다. 카밀리는 자신의 얼굴을 유리에 바짝 부친채로, 돌고래에게 동물인형을 보여주기도 하고, 돌고래 따라다니는 것을 반복하며 몇 시간을 보냈다.

마지는 카밀리가 조련사들에게 하는 온갖 종류의 질문을 옆에서 듣고 있는 것이 즐거웠고, 그들의 대화에 동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기뻐던 점은 카밀리와 그녀의 가족들과 편하게 시간을 보낸 것과 루페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은 점이였다. 얼마 전까지 마지는 자신이 루페와 친하게 지내면, 다른 아이들이 또다시 자기를 놀리게 될 거라는 걱정을 했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카밀리는 루페를 이전부터 알아온 것처럼, 루페와 간식을 나눠먹고, 함께 재잘거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카밀리는 자신과 루페를 바라보고 있는 마지에게 물었다. “무슨 생각해?”

“아니야, 아무것도” 마지는 거짓말을 했다.

“알았어. 우리 범고래 공연 보러가자!” 카밀리가 웃으며 말했다. “아빠, 멀린 아일랜드 파티<sup>23)</sup> 문 앞에서 7시 반에 봐요!”

“조심하고...” 카밀리의 아빠가 무언가 말하려할 때는 이미 네 명의 소녀들이 멋진 범고래들과 조련사들이 있을 공연장으로 뛰어간 후였다.

큰 소리의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왔다. 마지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생명체를 보기 위해 그리고, 공연을 즐기기 위해 각양각지에서 왔구나. 마지는 생각했다. 그리고 관중석을 둘러보다 문득 무척이나 다양한 인종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는 궁금증이 피어올랐다. 이 사람들은 모두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 어떤 언어들을 사용할까? 언젠가는 저 사람들의 나라를 여행도 해보고,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들의 언

23) 디스커버리 파크의 돌고래 공연장

어도 들어보고 싶어. 하지만 지금 이 곳에서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공연을 즐기고 있고, 어떠한 이질감 또는 이상함도 찾을 수 없어.

그 순간, 조련사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범고래 머리에 서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마지의 입에선 탄성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마지가 느끼는 안도의 감정은 단지 공연의 장대한 피날레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와서 깨닫게 된 것들 때문이기도 했다.

\* \* \*

공연이 끝나고, 카밀리 아빠와 만나기로 한 정문으로 향했다. 마지는 천천히 인파를 헤치고 걸어가면서 오늘 하루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다.

마지는 루페가 함께 살게 된 이후 처음으로 진짜 행복감을 느꼈다. 마지를 괴롭히던 끊임없는 걱정이 한 순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행복해 보였다.

마지는 또한 루페의 약간은 무모해 보였던 꿈까지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 행복했다- 루페는 오늘 코끼리를 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백호, 기린 그리고 아시아 코끼리와 같은 땅에 사는 동물을 보러갔을 때, 카밀리의 아버지는 루페가 코끼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아셨고, 루페에게 코끼리 타볼 것을 권유하셨다. 그리고는 티켓을 사주셨다.

루페는 코끼리에게 먹이를 줄 수도 있고, 코끼리와 줄다리기도 할 수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코끼리를 타보는 것이 루페가 가장 바라는 점이라는 것을 마지는 잘 알고 있었다.

“난 지금까지 엘 디아 데 로스 레이스 마고스 날, 동방박사 세 명 중에 나에게 선물을 가져다 준 사람은 벨사사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바로 지금 벨사사르처럼 내가 코끼리를 타다니!” 루페는 소리쳤다. “게 엘레판 탄 마라비료쇼!(*¡Qué elefante tan maravilloso*) 코끼리는 정말 우아하면서도 힘이 센 거 같지 않아?” 루페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상해,” 마지는 카밀리에게 말했다. “루페는 기분이 좋을 때면, 영어를 자연

스럽게 하는데, 걱정을 하거나 하면 아주 쉬운 말도 잘 하지 못해.”

“당연하지,” 카밀리가 말했다. “나도 샤워할 때나 혼자 있을 때는 정말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지만, 누군가 날 본다는 생각이 들면, 목소리가 줄어들고, 내가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아. 지금은 합창대에 있으니깐 많은 사람들 앞에 서도 즐겁게 부를 수 있어. 요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지.”

“그렇구나,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걸 내가 맞춰 볼까?” 마지는 돌고래가 즐겁게 놀고 있는 큰 수조를 가리키며 말했다.

두 소녀는 서로 마주 보며 웃었다. 그리고 마지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내 에세이에 쓸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생겼어- 행복은 사람이 언어를 배울 수 있게, 그리고 다른 것들도 모두 더 잘하게 도와준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한 후 잘 준비를 했다. 샤워를 하며 마지는 자신의 하루를 다시 되짚어 보았다. 너무나도 새롭고, 놀라운 것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행복한 루페를 볼 수 있던 것도 좋았다. 루페는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지만, 집을 멀리 떠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일 것이다. 코끼리 위에서 너무나도 편하게 웃음을 짓는 루페를 보면서 자신의 사촌이 정말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고래와 고래들의 공연도 정말 최고였다. 수조 속에서 젊은 여자 조련사가 돌고래와 함께 수영하는 것을 봤을 때는 숨이 막힐 정도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시각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다. 카밀리가 루페에게 한 말을 듣고 깜짝 놀랐었다. “루페, 네 머리는 정말 아름답다. 내 사촌 로사 같아. 난 항상 로사의 검고, 긴 머리가 부러웠어!”

## 13. 정답 찾기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결근하신 로드리게스 선생님을 대신해 루페의 반에는 대체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오늘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려 해요. 한 시간 정도 각자 책을 읽은 이후, 친구들과 의견을 나눠보도록 해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말씀하셨다.

루페는 곧바로 코끼리에 대한 책을 골랐다. 디스커버리 공원에 가기 전까지, 벨사사르가 탔던 엘 레이(*el rey*)와 같은 거대한 동물인 코끼리가 신화 속에서나 등장하는 생명체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 타보고, 가까이에서 관찰하면서 더욱 더 호기심이 생겨났고,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코끼리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임신 기간은 얼마나 될까? 아기 코끼리가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야생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코끼리의 기억력이 좋다는 것은 사실일까? 어떤 코끼리가 무리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루페는 위풍당당한 코끼리 사진으로 가득 찬 책들을 소중히 품에 안고 다시 교실로 향했다. 빨리 이 책 모두를 읽고 싶었다.

책장을 펼치는 순간, 다시 코끼리 타던 때가 고스란히 머릿속에 그려졌다. 정말 놀라운 경험 이었다! 정말 상상조차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카밀리의 가족과 함께 하루를 보낸 것은 매우 큰 행운이었다. 특히, 친절하고, 유쾌한 친구인 제시카를 알게 되어 기뻐다.

루페는 제시카가 큰 가방에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넣어가지고 다니며, 간간이 자신이 본 것을 그리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 제시카는 그림 그리기에 완전히 몰두해 있는 것처럼 보였고,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었다. 항상 화구를 챙겨 다니는 제시카의 모습을 보고, 루페는 자신이 코끼리를 좋아하는 것만큼 제

시카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제시카와 루페는 나중에 과학 아카데미에 함께 가보자는 약속을 했다. 코끼리를 탄 후, 제시카는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에 대해 말했다. “처음 본거는 과학아카데미에서였어. 돌고래나 코끼리처럼 크지는 않지만 정말 신비로워.”

루페는 궁금증을 가득 안고 물었다. “그 동물이 뭐야?”

제시카는 굉장한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다, “바로 바다용이야.”

“바다용?” 실망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난 네가 진짜 동물을 말하는 줄 알았어. 바다용은 환상 속의 동물일 뿐이야.”

“아니, 진짜 있어,,, 너도 알게 될 거야! 정말 사랑스러워.”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이 세상에서 바다용과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건 너도 알고 있지?”

“어떻게 생겼어?” 루페가 물었다.

동경하는 표정을 지으며 루페는 설명했다. “해마랑 비슷한데, 조금 더 커.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냥 작은 식물 같기도 해. 날개는-아 바다용은 날개가 있어- 나뭇가지나 해초처럼 생겼고,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하늘을 나는 모습이랑 비슷해. 너도 봐야 되는데. 정말 아름다워!”

루페는 호주바다에서 왔다는 이 신비로운 생명체를 하루빨리 보러가고 싶었지만, 정말로 원하는 것이 바다용인지 아니면 제시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루페는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제시카처럼 자신도 그런 가족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라는 상상을 해보았다. 놀이공원 같은 곳을 가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았다.

루페는 아빠가 떠나버리고, 엄마가 슬픔에 빠져 지낸 기간 동안 느꼈던 고통이 다시금 밀려왔다. 얼굴을 코끼리 책에 묻은 채, 울지 않기 위해 눈을 빠르게 깜박거렸지만, 흐르는 눈물을 참기는 힘들었다.

그 순간, 콘수엘로 고모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이 이렇게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매우 낙담하실 것이다. 부모님은 아니지만 고모와 고모부는 너무나도 따뜻하게 대해주신다. 고모에게 있어 자신은 떠나버린 고모 남동생과의 연을

이어주는 존재일 것이고, 피가 섞이진 않았어도 고모부 역시 항상 잘 대해주셨다. 아마도 프란체스코 고모부는 자신을 통해 콘수엘로 고모의 어릴 적 모습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어제 디스커버리 킹덤에서, 마지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루페가 함께 있다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한층 편하게 느껴졌다. 크리스마스 때 부터 싹튼 마지와 루페의 우정은 처음에는 불안정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의 일부가 된 것처럼 보였다.

루페는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한숨을 쉴 때 마다 꼭 안아주던 고모를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는 고모가 없으므로, 두 팔로 자신의 몸을 꼭 감싸 안았다. 루페는 삶에 대한 정답을 찾는 것 보다 훨씬 더 쉬운 문제인 코끼리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해 미소를 지으며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 14. 포크로리코

화요일 마지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니, 루페가 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루페는 복도 벽에 몸을 기대는 채로 수줍은 듯 서있었다.

“네 사촌이이네, 마르가리이이이다,” 존이 놀려댔다.

“아직도 영어를 못 하는 거야? 피터도 동참했다.

“루페가 너희 둘 합쳐놓은 것보다 똑똑해,” 카밀리는 조금이라도 키가 커보이게 하기 위해 몸을 꼳꼳이 세운 채 말했다.

피터와 존은 이 말에 콧방귀를 끼긴 했지만,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안녕, 마지. 올라(*Hola*), 카밀리. 마지, 로드리게스 선생님이 널 찾으셔,” 루페는 매우 천천히, 하지만 강한 악센트의 영어를 사용해 말했다.

“나를? 왜?” 마지는 덜컥 겁이 났다. 루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아무 문제도 없어,,,그냥 오라고 하셨어.” 마지가 망설이는 듯하자, 루페는 말을 덧붙였다. “아호라 미스모, 뽀르 파보르.(*Ahora mismo, por favor*) 널 보고 싶어 하셔.”

“알았어, 루페, 금방 갈게. 카밀리, 선생님이 날 왜 찾는지 모르겠어. 혹시 도서관에 못가면, 파지오니 선생님께 설명 좀 해줘.”

“응, 알았어.” 카밀리는 도서관 쪽으로 발길을 돌리며 말했다.

마지는 학교 본관 정원을 지나 이중 언어 학급, 언어치료사 그리고 특수 교육 학급들이 있는 본관 반대쪽 이동식 건물로 루페를 따라갔다.

매우 날씬한 로드리게스 선생님의 동그랗고 까만 눈동자는 마치 마지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마르가리타, 뽀드리야스 바일라 콘 노소트로스, 뽀르 파보르?*(¿Margarita, podrías bailar con nosotros, por favor) <sup>24)</sup> 선생님의 스페인어는 부드럽고, 마치 노래 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그 말을 이해 할 수 있어 기뻐다.

사실 마지는 춤추는 것을 정말 좋아하긴 했지만, 조금은 망설이며 영어로 질문했다. “춤이요? 왜 하필 저를?”

“음, 너는 딱 적당한 키를 가졌고, 바네사의 독감이 나올 때까지는 그 자리를 채워 줄 사람이 필요하단다. 그리고 넌 루페를 기다려야 하잖니, 왜 하기 싫으니?”

“아니요, 좋아요, 며칠뿐인걸요. 하지만 전 멕시코 춤을 출줄 몰라요.”

“배우면 된단다, 괜찮아.”

한 시간 뒤 마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멕시코 전통 춤인 *포크로리코*는 마지가 지금까지 알던 다른 춤과는 완전히 달랐다.

어렸을 적, 아빠는 종종 일요일 저녁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댄스 음악을 틀어놓고, 엄마와 나와 함께 감미로운 볼레로 또는 신나는 살사를 추곤 했다. 예전에 리즈네 집에서 여러 번 놀곤 했었는데, 그럴 때면 마지와 리즈는 함께 팝송을 들으며, 그 곡에 맞는 안무를 만들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어떻게 춰야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마지는 모든 스텝들이 헛갈렸다. 아이들은 책상을 밀어 모두 벽에 붙여서 교실 중앙을 비워놓았다. 로드리게스 선생님이 이제 마칠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지는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마지막 스텝을 거의 익힐 시점이었기 때문에 약간 서운마음이 들었다.

그 주 목요일과 그 다음 화요일에, 마지는 춤 연습을 위해 수업을 마치자마자 즐거운 마음으로 정원을 가로질러 이동식 건물로 향했다. 스텝들이 점점 익숙해지자, 음악의 흐름에 몸을 완전히 맡기기 시작했다.

---

24) 춤을 배워보지 않을까?



하지만 그 다음 목요일, 마지의 네 번째 춤 연습시간에는 다른 아이가 이미 와 있었다. “이 아이가 바네사란다,” 로드리게스 선생님이 말했다. “이제 다 나왔단다.” 그리고는 말을 계속 이어가셨다. “하지만, 오늘은 루시가 결석을 했구나, 그러니 계속 연습을 하면 어떨겠니? 네가 우리 단원들의 대역이 되어주면 좋겠어. 즉, 누군가 연습에 오지 못하면, 네가 그 자리를 채우는 거지.”

마지는 대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 지를 알 수 없었다. 집에 돌아가서 단어의 뜻을 찾아볼 것이다. 하지만 일단은 춤을 출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하루라도 춤을 더 출 수만 있다면, 말은 배역이 뭐가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했다.

## 15. 봄날

마지는 봄에 느낄 수 있는 희망의 기운뿐만 아니라 바람을 타고 코끝을 스치는 봄의 향기를 무척이나 좋아했다. 작은 새 두 마리가 현관위에다가 담쟁이덩굴로 등지를 짓자, 엄마는 새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모두에게 뒷문을 사용하여 출입하라고 하셨다.

마지는 새들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뒷문을 나와 집 앞 현관문 앞으로 오곤 했다. 물론 새들을 방해하지 말라는 엄마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긴 하지만, 새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했다.

우후죽순으로 자라서 마지의 집과 옆집 사이의 좁은 길을 가득 메운 식물들을 통과하는 이 짧은 여정에서, 마지는 라일락 나무아래 그늘진 곳에서 자라고 있는 독버섯, 클로버의 활짝 핀 보라색 꽃 그리고 연약해 보이는 양치류 등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이 생겨났다. 마지는 이곳에서 전에 읽었던 붉은 성벽 사원 이야기가 생각났다. 이야기 속에서는 오소리, 다람쥐, 쥐, 수달, 토끼 등의 다양한 동물들이 사원 주변에서 그들의 야채 농장을 일구고 있다. 동물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여우들의 땅을 보면서 견과와 열매들을 모으고, 위급상황에는 사원의 견고한 성벽 뒤로 대피한다.

마지는 종종 뒷문을 나와 현관문으로 가는 길에 멈춰 서서 생각에 빠졌다. 그리고 동물들 중 하나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것처럼 가만히 서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다. 라일락 주변으로 벌들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 확확 날아다니는 잠자리를 볼 때면, 자신도 모르게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바로 이곳 우리 정원에도 얼마나 많은 보물들이 숨겨져 있을까?

아마 이러한 것을 에세이에 쓸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는 생각을 정리해서 써

보았지만, 여전히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다.

마지는 엄마의 팔이 자신의 어깨에 둘러져 있는 것을 느끼고, 그때서야 엄마가 자신을 따라 밖으로 나온 것을 알아챘다.

“*테 구스탄 라스 플로레스 탄또 꼬모 아 미(Te gustan las flores tanto como a mi)*, 너도 나처럼 꽃을 좋아하는구나,” 엄마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래서 꽃 이름을 따서 네 이름을 짓단다, 마르가리타. 데이지는 정말 귀한 꽃이란다. 꽃의 중앙이 밝은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는 매우 아름다운 꽃이지. 네가 나에게 가장 큰 보물이듯 데이지 역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란다.

“제가 엄마의 가장 큰 보물이라고요?”

“*로 사베스 비엔, 이히따.(Lo sabes bien, hijita)* 물론이지. 너는 내 처음이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야.”

엄마는 마지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루페랑 함께 살게 돼서, 속상했지?”

마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라일락 향기를 머금고 있는 신선한 봄 공기를 크게 한번 들이마셨다. 엄마가 이런 질문을 몇 달 전에 했다면, 물론 지금과는 다르게 대답했겠지만, 지금, 지금은 루페 때문에 속상하지 않다.

“엄마, 전 루페를 사랑해요,” 마지가 말했다. 곧바로 마지는 말을 덧붙였다, “음, 요즘은 그래요. 처음엔, 루페 때문에 부끄럽고, 학교에서 루페랑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루페는 정말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루페가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엄마, 루페는 기분이 좋을 때 영어를 훨씬 잘하게 돼요. 눈치 채셨어요?”

“응, *꼬라쎌(corazón)*, 행복하면 모든 것이 쉬워진단다.” 엄마는 마지를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저녁 때, 아빠는 엄마를 위해 데이지 한 다발을 사오셨다.

“당신이 좋아하는 데이지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지” 엄마에게 입 맞추며 말씀하셨다.

마지도 함께 기뻐했다. 서로 아껴주는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 마다 마지 역시 행복했다. 얼마 전, 파지오니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셨던 ‘로라는 어떻게 함께 살게

되었을까’를 읽고,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지는 웃으며 말했다. “아빠, 정말 멋져요.”

엄마가 탁자위에서 데이지를 정리하는 동안 루페는 화병을 가지고 나왔고, 마지에게 질문했다, “왜 사람들이 네 예쁜 원래 이름 대신 마지라고 불러? 꼭 꽃 이름 때문만은 아니고, 시에도 나오는 예쁜 이름이잖아.”

“시? 무슨 시?” 마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질문했다.

“루벤 다리오가 쓴 다이아몬드 성과 모든 코끼리 무리를 거닌 왕에 대한 시야.”

마지는 미소 지었다. 카밀리가 돌고래를 사랑하는 것처럼 루페의 코끼리 사랑은 역시 남달랐다.

마지가 자신의 말을 마지가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을 알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별을 따기 위해 달 그리고 그 너머, 하늘나라까지 간 공주에 대한 이야기 알지? 루벤 다리오가 ‘마르가리타’라는 소녀를 위해 이 아름다운 시를 썼어. 그래서 그 시 제목도 ‘마르가리타에게’야!”

“사람들이 내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거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고... 친구들은 내 이름을 가지고 놀려댔어.” 마지는 예전 엄마 아빠에게 하던 변명을 계속해서 내뱉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그 변명에 대한 어떤 확신도 느껴지지 않았다.

“음, 선생님한테 발음하는 법을 가르쳐드리면 되지,” 루페가 말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고, 배워야만해.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잘 배울 수 있다고 확신해. 그리고 카밀리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아이들은 웃으라고 그냥 놔둬.”

마지는 꽃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시 이름이 뭐였더라? 다이아몬드 성과 마치 꽃인 것처럼 별을 따려했던 공주...그 시를 찾아달라고 파지오니 선생님께 부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그 공주의 이름이 제목이었지.

## 16. 또 하나의 깜짝 선물

“엄마, 어떤 아저씨한테서 전화 왔어요.”

엄마는 오븐에서 엔칠라다<sup>25)</sup>를 꺼내며 대답하셨다, “키엔 에스, 이히따?(¿Quién es, m'hijita)

루페가 함께 살기 전에는, “누구한테 온 전화니?”라고 물으셨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집에서는 스페인어가 더욱 자주 들리고, 엄마는 꼬라쑈(corazón), 까리뇨(cariño)와 이히따(hijita)와 같은 애칭을 사용해 마지를 부르곤 한다. 마지는 엄마의 스페인어를 알아듣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노 쓰(No sé). 물어볼 게요.”라고 대답했다.

마지가 누구냐고 물어보려는 찰나, 남자가 전화를 끊었다.

“콜고, 마니(Colgó, Mani),” “아저씨가 전화를 끊었어요.” 마지는 설명했다.

마지는 어쩐지 매우 중요한 전화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남자의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느껴졌다. 저녁식사 후, 전화벨이 다시 울렸고, 마지는 황급히 전화로 달려갔다.

아까와 같은 목소리의 아저씨가 또 다시 엄마를 바꿔달라고 하셨고, 마지는 “어 모멘토 뽀로 파보르. 노 콜가”(Un momento, pro favor. No colgar)<sup>26)</sup>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마지는 자신의 스페인어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고, 순간 부끄러워졌다. “노 켈피(No Cuelgue)<sup>27)</sup>”라고 했어야 했지만, 그땐 이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하지만 스페인어로 말하려 했다는 사실에 만족하기로 했다.

엄마가 전화를 받고, 그 아저씨와 대화를 시작하자 마지는 자신이 아주 조금이

25) 옥수수 빵에 고기를 넣고 매운 소스를 뿌린 멕시코 음식

26) 잠시만 끊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27) 끊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라도 도움을 줬다는 생각에 안도했다. 틀린 스페인어를 했지만 그 아저씨는 자신의 말을 이해한 것이다.

매우 중요한 전화임이 틀림없었다. 엄마는 전화를 들고, 뒤뜰로 나가 통화를 하셨다. 엄마가 전화를 끊고,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오셨다. 마지는 엄마와 아빠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다.

“누군데요?” 마지는 물었다. 하지만 엄마 아빠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질문한 것을 금방 후회했다. 엄마는 마지와 루페에게 숙제할 시간이라며 각자 방으로 가라고 하셨다.

다음날, 로드리게스 선생님은 오후에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야 해서 포크로리코 춤 연습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셨다.

마지와 루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에 낫선 아저씨가 앉아 있었다. 그 아저씨는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

마지는 루페 쪽을 바라본 순간, 자신만큼 루페도 깜짝 놀란 것을 알아챘다. 바로 그때, 엄마가 쟁반을 들고 들어오셨다.

“오늘은 일찍 왔구나,” 엄마가 말씀하셨다.

“엄마, 오늘 학교 안가셨어요?” 마지는 대답대신 엄마에게 물었다.

신년 연휴가 끝난 직후 엄마는 지역 전문대학에서 진행하는 강의 몇 개를 신청했다. “루페도 새롭게 영어 공부를 하는데, 나도 뭔가를 배워야지,” 엄마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하셨다. “나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너희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싶구나.”

그 이후로 엄마는 단 한 번도 수업을 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엄마의 행동은 이해가 잘 가지 않았다.

그때 그 아저씨의 인상이 일그러졌다.

“얘들아, 이쪽으로 오렴.” 엄마는 마지와 루페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주방으로 이끌며 말씀하셨다. “미안하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일찍 올 줄 몰랐단다. 밖에서 기다렸어야 했는데.”

“게 파사, 마미(¿Qué pasa, Mami)?” 엄마 왜 그러세요? 저 아저씨가 누군데요? 마지는 잇따라 질문했다.

“루페, 누군지 모르겠니? 내 동생 후안이란다. 네 아빠, 네 아버지...”

엄마는 계속 마지의 루페에 어깨에 팔을 두른 채로, 테이블 쪽으로 데리고 갔다.

“애들아, 여기 잠깐 앉아 있어.”

마지가 고개를 돌려 루페를 보았을 때, 루페는 마치 낮이 나간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루페는 종종 아빠를 다시 만나는 꿈을 꾸었다. 고모는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되며, 만약 아빠가 가족들을 찾길 원했다면 벌써 찾았을 거라는 말을 여러 번 했지만, 루페는 아빠를 다시 만나는 순간에 대해 끊임없이 상상해왔었다.

꿈속에서 아빠는 기타 반주에 맞춰,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면서 현관 앞에 서있었다. 그리고는 예전 아빠가 종종 그러했듯이 루페를 안아 하늘 높이 들어 올렸다. 아빠는 미소 지으며 루페에게 얼마나 많이 그리웠는지, 얼마나 사랑 하는지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해 말해주었다.

루페는 지금 이러한 꿈이 상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긴 했지만, 너무 오랫동안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루페는 조각구름이 한가로이 떠다니는 하늘에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광경을 보면 자신을 사랑했던 아빠가 떠올랐고, 언젠가 아빠가 자신을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샘솟았다.

언젠가부터 루페는 아빠가 사라진 것에는 분명히 그럴만한 이유와 사정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대신, 언젠가는 아빠가 자신을 보러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지금 이곳에 드디어 아빠가 나타났지만, 설마 한쪽 다리는 깁스를 하고, 의심의 눈빛을 하고 있는 뚱뚱한 이 사람이 아빠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니, 루페? 혹시 아빠를 만나기 전에 나한테 묻고 싶은 것이 있니?” 고모가 물었다.

루페는 고모의 다정한 얼굴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아빠가 확실해요?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빠가 어떻게 알았죠?”

고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루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 누구에게 의지해야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고모의 따스한 품에 와락 안겼다.

\* \* \*

다음 며칠 동안, 루페의 아빠인 후안 곤잘레스(Huan González)에게서 그 동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사실 그는 시카고에 있었고, 스텍톤에서 만난 한 사람이 농장보다 건설현장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해서 그 말을 믿었다고 했다. 그 곳에서 1년 이상 있었지만, 매서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텍사스로 갔다고 했다.

하지만 텍사스도 만만한 곳은 아니었다. 불법 체류자의 몸으로 취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취업도 어려울 뿐더러, 월급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할지라도 다른 인부들처럼 돈을 벌 수 없었다. 때때로 사업주가 소득세와 사회보장 연금 명목으로 월급의 일부를 떼어갔지만, 루페의 아빠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었다. 더군다나 어떠한 의료 보험 및 상해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최근까지 모아놓은 돈 전부를 엑스레이 촬영과 깁스를 하는 등의 병원비로 모두 날려버렸다고 했다. 수중에 돈이 떨어져 치료를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나의 집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며칠 동안 루페 아빠의 이야기를 통해, 이 곳에서 돈을 제대로 벌 수 없고, 추방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마지는 루페가 당연히 그 부분의 이야기를 알아야한다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루페 아빠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가 사는 산타로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내퍼에서 트랙터 사고가 난 후 자신의 누나에게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한 동안 잘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친구가 이 곳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했다.

루페 아빠의 이야기는 다 사실인 것 같았고, 계속 루페아빠와 연락이 되고 있



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반면 루페는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저런 생각들이 스쳐가며 슬픔에 빠졌다. 옛날에 아빠는 지금처럼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지. 그때처럼 지금도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빠였지만,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전혀 즐겁지 않아.

두 소녀는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실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루페의 아빠인 후안뿐이었다.

\* \* \*

분명한 단 하나의 사실은, 루페의 아빠가 돌아온 후, 마지의 부모님은 마지와 루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는 엄마 아빠가 자신들을 사랑으로 감싸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마지는 루페의 아빠가 자신이 딸한테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지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루페가 사실 직접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마지는 루페의 침묵에서 그 고통을 감지 할 수 있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마지의 엄마는 루페를 데리고 신발을 사기 위해 마트에 갔다. 마지는 아빠가 뒤뜰에서 일을 하는 동안 거실에 있는 루페 아빠에게로 다가갔다.

“뚜 이하...무이 부에나...무이 부에나”(Tu hija...muy buena...muy buena...)28) 이번처럼 스페인어의 필요성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생각을 하며 말했다.

“유뚜 뚜 레 바스 노 레 디씨에스”(Y tú...te vas...no le dices...)29)

루페가 겪는 고통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스페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좌절감 때문인지, 또는 둘 다일수도 있지만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

어느새 아빠가 들어와 마지를 살며시 안아주었다.

“괜찮아, 괜찮아, 마르가리타...” 마지는 아빠의 깊고도 차분한 목소리를 듣자

28) 삼촌의 딸은 정말 착해요

29) 다시는 떠난다고 말하면 안되요

조금 안정이 되었다.

아빠는 마지와 루페의 아빠를 바라보았다

“네 삼촌한테 하려던 말을 내게 해주지 않겠니? 내가 대신 스페인어로 말해 주마.”

마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묻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말도 없이 떠난다면 루페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매우 상처받게 될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 내가 한번 말해보마.”

아빠는 삼촌에게 스페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몇 분이 흐르고, 아빠가 마지를 안심시킬 때 종종 그랬던 것처럼, 마지의 팔을 살며시 잡았다.

“잘했어,” 아빠가 말했다. “*하블라 에스 부에노.*”(Hablar es bueno) 마음에 담아두는 것보다는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나아.”

루페의 아빠에게 몇 마디를 더 건넌 후 다시 마지에게 말했다. “네 삼촌은 그리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어.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면, 때때로 가장 소중한 걸 잊어버리고 한단다. 하나의 실수는 또 다른 걸 만들어내고, 사람들은 점점 진실을 회피하게 된단다. 하지만 지금 네 삼촌은 여기에 있고, 내가 생각하기엔 네 삼촌도 이제는 자신이 루페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 아마 여기에 오래 있진 않을 거야. 다리가 많이 나왔으니깐, 곧 텍사스에 있는 새 가족에게 돌아가겠지...”

루페의 아빠는 마르가리타의 아빠가 하는 말을 세심히 듣고 있는 것 같았다. 잠시 후 루페의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다. “*시, 시, 프란체스코... 시, 마르가리타.*”(Sí, sí, Francisco... si, Magarita)<sup>30)</sup>

그리고는 놀랍게도 마지를 향해 따스한 표정을 지으며, 루페를 잘 돌봐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그라치아스 뽀르 케레르 에 루페.*”(Gracias por querer a Lupe)<sup>31)</sup>

30) 네 맞아요.

31) 우리 루페를 아껴줘서 정말 고맙다.

## 17. 너 때문이 아니야

그 날 저녁식사 시간에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루페 아빠가 집에 온 이후로, 마지와 루페는 식사시간에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어른들조차 거의 말이 없었다.

루페는 시종일관 음식 접시만 바라보다 잠시 고개를 들었을 때, 자신의 아빠가 수심어린 눈빛으로 마지를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식사 시간이 끝나자마자, 루페의 아빠는 프란체스코 고모부에게 갔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대화를 나눴다.

마지의 아빠는 루페에게 거실에 있는 루페 아빠에게 가보라고 말하고, 마지에게는 주방 일을 도와달라고 하셨다.

루페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다. 사실 루페는 아빠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감정들 때문에 두렵기도 했다. 과거의 아름다웠던 기억들마저 이제는 위태롭게만 느껴졌다. 그리고 여태까지 아빠에 대한 환상을 채워주던 가슴 아픈 갈망들이 지금은 루페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 또 너무나도 금방 사라져버릴 것 같은 아빠에 대한 분노로 전부 변해버렸다.

아빠가 아무 말이든 먼저 시작하길 바라며, 거실 입구에서 말없이 서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해서 솟구쳐 나오려는 희망의 날개 짓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다.

“루페,,,” 아빠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예전처럼 부드러웠다.

“벤, 아세르카트...미라.”(*Ven, acércate...mira*) 가까이 오라는 아빠의 말에, 루페는 천천히 그가 앉아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에스 투 헤르메니따... 세 디아마 쏘지틀.”(*Es tu hermanita... Se llama*

Xochitl) 그가 어린 소녀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자, 루페는 아빠의 말을 조용히 되 뇌여 보았다. 내 여동생...이름은 쓰지틀. 순간 아빠의 다음 말이 잘 들리지 않았다. “내가 쓰지틀 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내가 어릴 적 네 인형을 부르던 이름이기 때문이란단다. 너는 그 인형을 정말 사랑했지. 네 할머니 집에 놓고 온 후, 네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기억해 보렴, 그리고 넌 그 인형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었지?”

잠시 말을 멈춘 후, 아빠는 루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읊조리는 것처럼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다시 이어갔다, “아마도 나는 언젠가는 네가 그 인형처럼 네 동생을 사랑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쓰지틀로 지었던 걸까.”

루페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의혹의 장벽이 거치고, 자신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에 순간 온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스러웠다. 아빠에게 다른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분노했다. 동시에 헛된 희망에 절대 굴복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전히 너무나도 소중한 과거에 대한 기억을 깨우는 아빠의 감미로운 목소리에 루페의 마음은 동요되었다.

아빠는 잠시 동안 루페를 바라본 후 말했다,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단다. 들어주렴. 나에게도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무엇보다도 너한테 매우 중요한 말이란단다.”

“내 행동은 옳지 않았어. 매우 옳지 않았어. 그래, 난 나쁜 아빠였고, 나쁜 남편이었단다. 너무 미안해. 그러나 지금 내가 사죄한다고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정말 이런 걸 의도 했던 것은 아니었어. 다시 원상태로 돌릴 수도 없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무슨 실수를 저질렀던 간에, 그리고 내가 너한테 어떤 고통을 줬던 간에, 너는 절대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너는 절대.”

“너는 분노의 삶 속에 네 스스로를 가두고, ‘이 모든 것은 아빠가 날 버렸기 때문이야’라고 말하며, 네가 한 선택들을 정당화하는데 내 실수를 이용할 수도 있지. 실수 속에는 그 실수를 저지른 자들의 변명만이 있지. 혹시 네가 다른 사람의 실수를 탓하며 네 삶을 낭비한다면, 네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네 삶을 망치는 게 된단다.”

“아니면, 너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야, ‘나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 아

빠는 나를 버렸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어. 하지만 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아빠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 받을 수는 없어.’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네가 잘 해나갈 수 있다고 믿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스스로를 위해서,” 아빠는 이렇게 말을 마쳤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빠의 말을 듣고 있던 루페가 고개를 들어 아빠를 바로 쳐다보았다.

루페는 처음으로 아빠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다. 그것은 어린 시절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이야기속의 천하무적 영웅도 아니고, 지난 3주간 함께 지낸 의기소침한 사람, 그리고 사실은 그렇지 못했지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하던 사람의 모습도 아니었다.

대신, 여기 루페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자신으로 인해 상처받은 딸의 짐을 덜어주고, 그리고 루페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격려해주고 있었다. 아빠는 루페 앞에 서서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용감하게 인정하며,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 때 어디선가 프란체스코 고모부가 항상 하던 말이 들리는 것 같았고, 이젠 그 말이 진심으로 마음에 와 닿았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걸 인정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잠시 후, 루페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아빠의 품에 안겼다.

## 18. 세 번째 가족

토요일 아침은 보통 모든 게 천천히 시작되기 마련이지만, 포크로리코 공연 리허설이 있는 이 날 아침은 보통의 평일만큼이나 빠르게 시작되었다. 마지와 루페는 아침부터 서둘러 나가기 위해 서로를 챙기느라 너무 바빠서, 루페의 아빠가 주방에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마지, 몇 시 까지 학교에 가야하니?” 마지의 엄마가 물었다.

“노 스.(No sé)<sup>32)</sup> 루페, 로드리게스 선생님이 *게 테니아모스 게(que teníamos que)*<sup>33)</sup>은 몇 시까지 오라고 했지?” 마지는 주스를 따르며, 루페에게 물었다.

“글쎄, *페로 케레로 게가르 무이.*”(pero quiero llegar muy)<sup>34)</sup> 마지가 주스를 따르려 하자, 루페는 컵을 마지에게 내밀며 대답했다.

누구도 루페의 아빠가 주방에서 *웨이보 란체로(huevos rancheros)*<sup>35)</sup> 요리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마지의 아빠는 셔츠의 단추를 잠그며 방으로 들어간 후 말했다, “출발하자, 너희들을 학교에 내려주기 전에, 잠깐 칠물점에 들러야해.”

“*부에노스 디아스.*”(Buenos días)<sup>36)</sup> 루페의 아빠가 따뜻한 토르티야가 든 바구니와 *판달세이* 접시를 식탁에 놓으며 말했다.

모두들 아침식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멈춰 섰다.

“잠시만 모두들 앉자,” 마지의 아빠가 말했다. “얘들아, 너희들이 약간 늦어도

---

32) 잘 몰라요

33) 무용수들은 몇 시까지 오라고 했지?

34)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35) 프라이하거나 삶은 계란을 밀가루 반죽에 얹히고 토마토소스를 뿌려 먹는 음식

36) 좋은 생각이야

로드리게스 선생님은 괜찮다고 하실 거야.”

모두들 식탁에 둘러 앉아 아침식사를 했다. 음식을 서로 나눠 먹으며, '쁘르 파보르...그라치아스(Por favor gracias)', '무이 사브로소(Muy sabroso)<sup>37)</sup>' 라는 말을 연발했다.

잠시 후, 루페의 아빠 후안이 말했다. “프란체스코, 뿌르 파보르, 레 투라두스.”(Franchisco, pro favor, me traduces) 마지의 아빠에게 통역을 부탁하고, 말을 시작했다.

“최근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루페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의 아빠는 계속 통역을 했다. “미국에서 학교도 다니고, 영어도 배울 수 있어서 매우 기뻐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실수를 했어요. 이제는 텍사스에 제 집과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루페는 당연히 가족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마지와 루페는 먹는 것을 멈추고, 귀 기울여 말을 듣기 시작했다.

“헤 데시디도 게 루페 시 메르세 비비르 엔 디하르 콩 수 무에바 페밀리야.”  
(He decidido que Lupe se merece vivir en Tejas con su nueva familia)<sup>38)</sup>

마지 아빠가 통역도 하기 전에, 두 아이들은 동시에 소리쳤다, “안 돼요!”

“루페는 콩 노소또로스(con nosotros)<sup>39)</sup>있어야 해요.” 마지가 애원했다.

“전, 여기에...있을 거예요!” 루페가 더듬더듬 말했다.

“저흰 자매예요...꼬모 헤르마나(hermana)... 학교에서도 이젠 정말 잘 지낸다  
고요,” 마지는 설명했다.

“영어도 많이 늘었어요...” 루페는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말했다.

아이들은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다.

“...저는 친구도 있고요, 춤도 추고 있어요,” 루페는 계속 말했다.

“저는 루페가 여기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는 계속 울먹거리며 말했다.

“케레로 게다르메 콩 미 티아 이 미 티오(Quiero quedarme con mi tía y mi

37) 너무 감사해요, 정말 맛있어요.

38) 저도 이제는 가족이 있고, 루페는 가족과 함께 살아야한다고 생각해요

39) 우리와 함께

tío), 이 분들이 저에게는 새 가족이에요,” 루페가 고모와 고모부를 바라보며,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노 게레로(*No quiero*)...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싫어요, 노 게레로 빠사르 뽀르 도도 예소 오토라 베스(*No quiero pasar por dodo eso otra vez*),,,,또 다시, 처음부터....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다고요”

“루페는 이미 우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는 세 명의 어른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절대 떠나서는 안돼요!”

“사랑해요, 아빠,” 루페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있는 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요.”

“이러다 늦겠어요... 저희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마지는 말을 마친 후, 루페와 함께 걸어 나갔다.

마지의 엄마 아빠는 아이들이 친자매처럼 함께 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있었다. 루페 아빠를 위해 아이들이 지금까지 한 말 그리고 감정도 구지 통역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날 오후, 루페의 아빠는 모두가 모인 앞에서, 내일 텍사스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누나와 매형에게 루페를 자신의 집에 종종 올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의 새로운 아내가 딸 쏘치틀과 통통하고 귀엽게 생긴 남자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루페가 세 번째 가족을 받아 들이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마지 엄마는 말했다. 루페의 어깨에 손을 두르며, 콘수엘로는 동생에게 말을 계속 이어갔다, “이제, 이 곳은 루페의 집이란다. 우린 루페의 영원한 가족이고. 물론 루페는 엄마와 쌍둥이 동생이 멕시코에 있지, 그리고 언젠가 그들을 보러가고 싶다고 할 거야. 그리고 지금 너는 루페에게 네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자고 했어, 네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그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언젠가, 루페도 모두 함께 가족이 되는 것이 큰 선물임을 깨닫게 될 거야, 하지만 아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구나.”

마지는 루페가 엄마와 삼촌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하는 세 개의 다른 가족이야기를 듣는 동안, 루페의 얼굴에는 다양한 표정들이 스쳐지나갔다.



“네가 언제든지 가길 원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 나도 함께 갈 거야. 우리는 영원한 자매니까.” 마지는 루페의 손을 잡아, 뒤뜰로 데리고 나간 후 말했다. “이리와봐. 카밀리한테 새로운 줄넘기 노래를 배웠어. 내가 가르쳐줄게!”

아이들은 한참동안 밖에서 줄넘기를 했다. 리듬에 맞춰 함께 동시에 뛰는 기분은 무척 좋았다. 마지는 자신이 한때 루페를 시기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루페와 나눠 갖는 것에 분개했으며, 그리고 부모님과 루페가 스페인어로 대화할 때 자신이 소외감을 느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루페는 자신이 사촌 마지와 친자매처럼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아마도 언젠가는 쏘치틀도 만나서, 사랑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순간 마지가 루페의 친자매나 다름없다는 점이다.

아이들이 줄넘기를 하는 동안, 마지의 아빠는 볼일을 보러 외출했다. 아빠가 돌아왔을 때 기타 케이스를 들고 서 있었다.

“후안, 콘수엘로와 내가 자네를 위한 이별 선물을 준비해봤어.” 아빠는 케이스를 벗겨 삼촌에게 주었다.

삼촌이 케이스를 열고, 그 안에서 기타를 꺼내자, 아빠는 말을 이어갔다, “자네가 시카고에서 기타를 도둑맞았다고 했을 때, 빨리 그 일을 잊어버리려 했다고 우리에게 말했지. 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자넨 무척이나 가슴 아팠을 거야. 자네 같은 훌륭한 음악가는 당연히 기타를 가지고 있어야지.”

삼촌은 아빠를 안고, 고맙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위해 연주 한번 해주겠니?” 마지 엄마가 말했다. “네 연주에 맞춰 아이들이 학교에서 연습한 포크로리코 춤을 보여준다고 하네.”

“무슨 춤이라고요?” 후안이 되물었다. 그 후 한참 동안 루페의 아빠는 마지와 루페가 요청한 모든 곡을 연주해주었고, 아이들은 활기찬 포크로리코 리듬에 맞춰 쿵쿵 뛰고, 빙그르르 돌았다.

## 19. 드레스 리허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자, 학교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 언제나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던 카밀리 마저도 판청을 부리기 일 수였다. 항상 자신이 인터넷에서 찾은 돌고래, 고래 또는 바다소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에게 들려주는 것 대신, 자신의 노트에 꽃, 나비 같은 것에 대해 끼적거렸다.

학교 수업시간이 되면, 마저는 금방이라도 잠에 빠져버릴 것처럼 노곤함이 밀려왔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면, 자신이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상상에 빠지곤 했다. 하지만 수업을 마치는 종이 울리면, 다시금 번쩍 일어나 포크로리코 춤 연습을 하러갔다.

로드리게스 선생님은 *신코 데 마요(Cinco de Mayo celebration)*<sup>40)</sup> 축하공연을 위해 학생들을 매일 연습시키고 있었다. 이는 아이들이 일 년 동안 배운 춤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가장 큰 행사였다.

약속대로, 마저는 이 공연의 대역을 맡았다. 마저는 사전에 찾아본 후, 대역이라는 말에는 ‘대신에’라는 뜻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지만, 역할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마저는 대역 이라 함은 필요할 경우, 주연 배우 또는 무용수를 대신해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훈련하는 것임을 알았다. 아이들이 결석을 할 때 마다, 마저가 그 빈자리를 채웠다. 하지만, 선생님은 가끔 결원이 없을 때에도, 아이들 중 한명씩을 잠시 동안 쉬게 하며, 마저가 그 자리를 대신 채우게 했다. 이렇게 하여 마저는 실제로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항상 연습을 할 수 있었다.

“이제 도서관 일은 더 이상 안할 거야?” 카밀리가 오후에 물었다.

40) 신코 데 마요란 스페인어로 '5월 5일'이란 뜻. 과거 전쟁에서 멕시코가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축제

“파지오니 선생님께 다음 주부터 나가겠다고 말 좀 전해줘. 신코 데 마요 연습이 그 때 끝나거든.” 마지는 연습장 쪽으로 뛰어가며 대답했다.

그 날 오후, 연습은 다른 때 보다 더 오래 진행되었다. 잠시 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사과와 주스를 주었다. 그리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알릴 소식이 있다고 했다.

“우리는 목요일에 강당에서 연습을 할 예정이야. 그 때 다들 의상을 가지고 와야 해. 금요일에 마지막으로 드레스 리허설을 할 거다. 만약 시간이 되신다면 너희 엄마들이 오셔서 옷을 입고, 머리를 땡는 것을 도와주면 좋을 것 같구나.”

“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마지가 말했다. “전 못 올 것 같아요, 전 의상이 없거든요. 루페는 멕시코에 계신 엄마가 의상을 보내주셨지만, 전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진짜 멕시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태어난 곳은-”

“그럼, 알지, 너는 텍사스에서 태어났지. 하지만, 그래도 꼭 오렴. 무대 의상이 아직 없는 아이들도 많아. 그리고 너는 모든 스텝을 완벽하게 알고 있잖니, 네가 그날 와서 우리를 도와주면 정말 고맙겠구나, 마르가리타.”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계속 이어갔다. “네 춤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란다.” 마지는 짱충짱충 뛰고, 달리고, 빙글 빙글 돌며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선생님의 마지막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 20. 멕시코에서 온 리본

다음날 초인종이 울렸을 때, 샤워 중이던 루페를 대신하여 마지가 현관문을 열자, 구슬을 달아 여러 가닥으로 땀은 머리를 한 여자가 소포를 가지고 서있었다.

“정말 큰 소포구나,” 그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마지에게 말했다. “이 소포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네.”

“제 사촌에게 온 거예요. *신코 데 마요* 공연 때 입을 드레스예요.

“오, 그래? 나도 *신코 데 마요*를 정말 좋아해,” 여자가 대답했다. “멕시코 전통 춤은 정말 신나고, 무용수들이 입는 폭넓은 치마는 굉장히 아름답지. 항상 궁금했던 건데, 혹시 드레스의 다양한 색깔들에 특별한 의미가 있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마지가 대답했다. “아마 아닐걸요. 아마도 무용수들이 입고 싶은 옷을 입거나 아니면, 그들의 엄마들이 원하는 색깔의 옷을 입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 말로는 엄마들은 자신들이 어릴 적 입었던 것과 같은 색의 옷을 딸들이 입기를 바라대요.”

“아, 그렇구나, 그럼 넌 무슨 색 드레스를 입을 거니?”

“전...저는 드레스가 없어요. 전 춤을 안 출거예요. 저는 공석이 생길 경우 그 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마지는 말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다. “사실 전 진짜 멕시코사람은 아니에요. 전 미국인이예요. 텍사스에서 태어났거든요...”

“멕시코 사람만 *포크로리코* 춤을 출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젊은 배달원이 말했다. “나도 정말 배우고 싶었는데. 언젠가 꼭 배울 거야.” 그녀가 꿈꾸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뱅그르르 한 바퀴를 돌자, 그녀 머리에 달린 구슬들이 서로 부딪치며 경쾌한 소리를 냈다. “오, 이제 그만 가야겠다. 오늘 즐거웠다. *펠리스* 신

코 데 마요!”(Feliz Cinco de Mayo celebration) 그리고 그녀는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참, 그날은 미국 공휴일이기도 해, 알지?”

배달원이 간 후, 마지는 재빨리 이 층 욕실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루페, 혹시 궁금해할까봐,,네 드레스가 드디어 왔어!”

마지의 말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루페가 젖은 긴 머리를 수건으로 뭉뭉 감고, 손살같이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빨리 열어봐!” 마지가 말했다.

“고모가 아직 안 오셨는데, 우리끼리 소포를 뜯어봐도 될까?” 루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너한테 온 거잖아,” 마지가 말했지만, 루페는 계속 망설여졌다. “하지만, 고모가 오실 때 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열어보면, 네 엄마가 훨씬 좋아하실 거야.”

마지의 엄마는 지역전문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무척 즐거워했다. 콘수엘로는 두 학기 남아있는 영어 수업을 끝마친 후, 치위생사 공부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전문 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마지의 엄마가 아침식사 시간에 말을 꺼냈다. “너희들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월급을 받는다면 우리 가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야.”

루페는 재빨리 고모부의 반응을 살폈다. 왜냐하면, 반 친구들과로부터 아빠들은 엄마들이 나가서 일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고모부는 화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반대로 자랑스럽다는 표정으로 고모를 쳐다보고 있었다.

루페가 말했다, “콘수엘로 고모는 항상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셨어. 만약 너희 엄마가 여기 안계셨다면, 난 아마 고향을 떠나 이 곳에서 살 수 없었을 거야! 우리 고모가 오실 때 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뜯어보자!”

마지도 엄마를 기다리기로 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다.

드디어 엄마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여기 있어요! 루페의 소

포가 왔어요!” 마지는 흥분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열어봤니?”

“아니요, 엄마 기다렸어요.”

“어머, 착하기도 하지. 빨리 뜯어보자.”

아이들은 마지의 엄마에게 가위를 건넸고, 콘수엘로는 조심스럽게 포장지를 뜯었다. 상자 안에서 하얀 종이 포장 뭉치를 건어내자, 아름다운 보라색 드레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블라우스와 폭이 넓은 치마를 장식하고 있는 리본들이 다양한 색조의 분홍색과 보라색을 띠고 있었다.

“정말 아름답다, 루페! 지금까지 내가 본 무용수 중 네가 가장 예뻐! 길게 땅아 내린 머리와도 너무 잘 어울려!” 마지의 환성에 마지의 엄마와 루페가 깜짝 놀랐다.

드레스를 바라보던 루페의 눈가에 갑자기 눈물이 맺혔다. “엄마는 이 드레스를 만드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야,” 루페가 말했다. “메르세데스 할머니가 삼촌댁으로 가시면서, 엄마에게 재봉틀을 주셨거든. 그 재봉틀로 엄마가 처음 만든 옷이 내가 등교 첫날 입었던 그 원피스였어. 마지, 기억하지? 그 분홍색 원피스.”

“물론, 기억나,” 마지가 대답했다. “엄청 오래된 것 같지만, 겨우 8개월 전인 걸!”

“응, 여기 뭐가 더 있는데,” 마지의 엄마는 다른 종이 뭉치를 꺼내며 말했다. 그것은 또 다른 드레스였다. 빨간색과 파란색 리본으로 장식된 하얀 드레스였다. 드레스에는 스페인어로 적힌 메모가 놓여있었다.

루페가 그 메모를 영어로 소리 내어 읽었다.

*나의 미국 조카, 마르가리타에게*

*공연 때, 이 옷을 입고 춤을 추길 바래*

*너와 같은 이름을 가진 꽃의 순백색 그리고*

*네가 태어난 곳을 상징하는 색으로 만들어 보았단다.*

네가 이 옷을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어.  
내 딸 루피타에게 잘 대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루페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때,  
너도 함께 우리를 만나러 와주면 좋겠구나.

너의 멕시코 숙모  
돌로레스

“오, 루페, 정말 너의 엄마께 감사해,” 마지가 루페를 꼭 안으며 말했다. “엄마, 엄마는 전부 알고 계셨죠? 이번 공연 때 춤을 추지 못하더라도, 신코 데 마요 날에, 이 드레스를 입고 있을 거예요. 눈으로만 보기에 너무 아름다워요. 물론, 제 짧은 머리와는 잘 어울리지 않겠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다른 아이들의 머리도 다들 그리 길지 않아. 보통 검은 실로 땀아 만든 수술을 머리에 달아,” 루페가 말했다. “그러니 아무 문제없어. 베르다드, 티아, (*¡Verdad, Tía*) 그렇죠, 고모?”

“물론이지,” 콘수엘로가 대답했다. “그럼 이것들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봐볼까?” 마지의 엄마는 상자 맨 아래에 있던 각양각색의 리본들을 꺼내며 말했다.

## 21. 마지? 마르가리타?

마지와 가족들이 *신코 데 마요* 축하 공연을 하는 학교 강당에 도착했을 때, 마지는 정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많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 올 거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었다.

“와, 너 정말 아름답다!” 마지가 무대로 가기 위해 복도를 지나가는데, 베틀이 말했다.

“이따가 끝나고 사진 같이 찍어줄 수 있어?” 리즈가 물었다.

마지는 대부분의 반 친구들이 모두 와서 앉아 있는 것을 알아채곤, 미소를 지었다.

“그럼, 기다릴게. 오늘 난 춤은 안출거야.”

“진짜 멕시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지? 그런 거지?” 존이 옆에서 끼어들었다.

“상관하지 마, 존. 재미없어,” 카밀리가 말했다. 사람들을 웃기고 싶으면, 개그 학원이라도 좀 다니지 그래?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유머집 같은 거라도 좀 찾아 봐.”

“애들아, 이따 보자. 혹시 로드리게스 선생님이 날 찾을 수도 있어서, 무대 뒤로 가 있어야 할 것 같아.” 마지는 마치 물위를 떠가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복도를 빠져나갔다.

로드리게스 선생님이 웃으며 마지에게 인사했다. “정말 아름답구나, 마르가리타!”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네!”

“제 숙모가, 아니, 루페의 엄마가 멕시코에서 보내주셨어요.”

“정말 훌륭한걸. 오늘 무대에서 정말 멋질 것 같구나.”

“하지만, 전 춤을 안 추는 걸요! 선생님, 혹시 누가 아픈가요? 아니면 결석이



요?”

“아니, 걱정 마, 아무도 안 아파. 넌 오늘 대열의 중앙에 설 거야.”

“네? 그건 루페의 자리잖아요.”

“응, 하지만 오늘은 아니란다. 오늘은 네가 그 자리에 설 거야. 서둘러. 이제 곧 우리 차례야.”

로드리게스 선생님이 무대에 나가 관객에게 환영인사를 했다. “브에노스 노체스.(*Buenas noches*) 비엔베니도 아 누에스트라 셀레브라시온 텔 신코테마 요.(*Bienvenidos a nuestra celebración del Cinco de Mayo celebration*) 즐거운 관람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학생들이 멕시코의 활기차면서도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여러분들께 선보이기 위해 일 년 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본 공연에 앞서 저희 학생 중 한명이 매우 특별한 것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음악은 매우 다양한 곳에서 영감을 얻죠, 때때로 시 구절 하나가 음악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저희 학생, 루페 곤잘레스는 오늘 위대한 시인 루벤 다리오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음악을 어떻게 창조해 냈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프로그램 뒤편에 루페가 스페인어로 암송할 시의 영어 번역본이 있습니다. 스페인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함께 이 아름다운 시를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커튼이 젓히고, 아름다운 자색 원피스를 입은 루페가 화려한 빛을 내뿜으며 무대중앙에 조용히 서있었다. 관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후, “마르가리타”라 말하며 시작을 알렸다.

마지는 처음에는 너무나도 깜짝 놀라 루페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로드리게스 선생님은 너무나도 감미로운 시라고 말했지만, 마지는 거의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루페가 다이아몬드 성과 햇빛으로 만들어진 텐트, 공작석으로 만들어진 정자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꼬끼리 무리를 가진 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 말들은 점점 더 친근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어린 공주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객석은 매우 고요해졌다. 마지 아니 마르가리타는 다른 무용수들과 함께 무대 뒤편에서 기다리는 동안, 객석이 너무나 조용해서 쿵쿵거리는 자신의 심장소리를 다른 이들이 들을까봐 두려워졌다. 반면, 루페

는 반짝이는 별을 찾기 위해 달 너머 하늘까지 여정을 떠난 공주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다.

마지는 마치 처음으로 스페인어로 된 음악소리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루페의 목소리는 어렸을 적 마지를 재워 주던 엄마의 목소리를 상기시켜주었고, 루페의 말은 엄마의 어루만짐만큼이나 따듯하고, 부드러웠다.

갑자기 루페는 왕이 별을 따서 돌아온 공주를 보고 격분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왕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떠난 공주를 매우 걱정했었고, 또한 공주가 겁도 없이 천국에서 별을 따오자 크게 화를 내었던 것이다. 마지는 루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극도의 긴박감에 관객 모두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다시 루페의 목소리는 나쁜 의도로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하는 어린 공주의 달콤한 목소리로 변했다. 마지는 순식간에 목소리를 변화시키는 루페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지금까지 루페에게 이런 재능이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었다.

마지는 다시 왕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루페는 우레와 같이 성난 목소리로 공주에게 별을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말하고 있었다. 마지는 공주가 정말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별을 찾은 후- 그 시는 별을 ‘우나 플로르 데 루스(una flor de luz), 빛으로 많은 꽃’으로 부르고 있다-공주는 꼭 다시 그 별을 가져다 봐야 하는 걸까? 너무 슬프다! 이야기가 끝을 향해 달려갈수록, 루페의 목소리는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마지 아니 마르가리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지는 행복한 결말이 좋았고, 공주가 별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자 안도했다. 마지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표정을 한 채,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낭송한 아름다운 시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빼앗은 루페가 자랑스러웠다. 그때 자신의 이름이 한 번 더 들렸다. 어떻게 자신의 이름 마르가리타가 이리도 다르게 들릴 수 있을까!

루벤다리오가 이 시를 헌정한 소녀에게 했던 작별 인사를 끝으로 시 낭독이 끝나자, 마지는 마치 그 소녀가 자신인 것 같았고, 마치 자신이 이야기 속 마르가리타라는 착각이 들었다.

루페가 관객을 향해 인사를 하자 박수갈채가 강당을 가득 메웠고, 마르가리타

는 이제 곧 자신이 무대에 설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자신도 모르게 자세가 바로잡아졌다.

다시 한 번 무대의 장막이 걷히자, 화려한 무지개 색 표현을 위해, 거대한 리본으로 장식된 치마를 위로 올려 잡은 채 자신들의 시작 위치에 선 무용수들이 거대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다발을 형성하고 있었다.

음악이 강당 전체에 흘러나오자, 맨 앞줄에 있던 소녀들이 자신들의 무용화로 바닥을 치며 리듬을 만들어냈고, 뒷줄에 있던 소년들도 이에 동참했다. 곧 짝을 이뤄 무대 전체를 앞뒤로 움직였다. 하얀 원피스의 부드러운 천이 빠르게 빙빙 돌며 소용돌이 칠 때, 마지는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가족의 사랑이, 특히 꽃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준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내 이름은 오래전 한 시인으로부터 그의 아름다운 시를 헌정 받은 소녀의 이름이기도 하다. 그리고 마르가리타는 빙글 빙글 돌며 춤을 추면서, 자신을 위해 숙모가 선택한 미국의 상징색인 푸른색과 붉은색 리본들이 요동치는 것을 보았다.

춤을 출수록 분명해 지는 것은 자신은 마지이자 마르가리타이며, 미국인이자 멕시코인 이라는 사실이었다. 사람에 대한 애정, 활기찬 음악, 기백이 넘치는 춤, 루페가 보여준 화려한 색의 그림을 비롯한 멕시코의 모든 좋은 점들이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항상 가보고 싶은 아름다운 장소들, 원하는 책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도서관, 학교, 선생님, 친절한 사서 선생님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좋은 점들이 역시 자랑스러웠다. 자신이 태어난 국가 그리고 가족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국가가 있고, 이 두 나라가 가진 좋은 점들 중에서, 어떤 하나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꼭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

곧, 루페와 함께 멕시코에 방문할 것이고, 그때 부모님의 나라에 대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배울 것이다. 좋은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고, 자신이 누구인가는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아닌, 자신의 마음가짐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알고 있으므로, 언제가 온 세상을 여행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무엇이 진실로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자, 마지는 자신을 아니 멕시코 춤의 스텝들로 인해 더욱 활짝 핀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장식된 하얀 마르가리타(margarita)를 휘감고 있는 음악을 느낄 수 있었다.

# 나의 가족

마르가리타 “마지” 세발로스-곤잘레스(Ceballos-González)

저는 항상 미국에 태어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텍사스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캘리포니아로 이사 오기 전  
2학년 때까지 그곳에 살았습니다.  
처음 미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생각이 든 이유는 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인이지만, 저의 가족은 멕시코인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이로 인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은 항상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십니다.  
그들이 있어 저는 정말 행운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의 부모님은 미국이 고향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페인어를 하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저의 대부분의 친구들 부모님과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영어를 하지만, 스페인어 악센트가 묻어나옵니다.  
저는 항상 부모님이 미국인보다는 멕시코인에 가깝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부모님이 조금 더 미국인에 가깝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다르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이곳에 적응하길 원했습니다.  
이 곳에서 태어났고,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온지 얼마 안 되고, 영어를 전혀 못하는  
이중 언어 학습에 있는 아이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집에서조차도 스페인어로 말하고 싶지 않았고,  
이런 저의 모습을 본 부모님은 슬퍼하셨습니다.  
그때 제 사촌이 저희 집으로 함께 살기 위해 왔습니다.

사촌은 멕시코에서 태어났고, 처음 미국에 왔을 당시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몇몇 친구들은 저를 또다시 놀리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저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집에서 제 사촌과 스페인어로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보다 그 아이가 저보다  
 제 부모님과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전혀 그렇게 대하지 않았지만,  
 전 때때로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사촌도 똑같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제 사촌은 두 개의 세상에서 사는 법을 배우고 있고,  
 또 그것을 무척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친자매는 없지만,  
 지금은 제 사촌이 저에게 있어 친자매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 사촌의 부모님이 서로 이혼을 하시면서,  
 그녀는 저희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엄마, 할머니 그리고 쌍둥이 남동생이 멕시코에  
 살고 있으며, 그녀는 그들은 무척 사랑합니다. 저는 그녀가  
 언젠가는 텍사스에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살고 계신  
 아버지를 찾아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이곳에서 저와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겠다고 했고,  
 저는 그 사실이 무척 기쁩니다.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때때로 좋은 일들은 처음에는 당연히 무척 힘들 수 있으나  
 변화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제 가족이 변했다고 느꼈을 때,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지금 저에겐 친자매나 다름없는 사촌이  
 생겼습니다. 제 사촌은 멕시코인 이며, 지금은 영어를  
 그리고 미국에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인이며,  
 지금은 스페인어를 그리고 멕시코에 대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돌고래를 사랑하는 제 친구 카밀리가 말했듯이,

모든 이들의 가족은 본래부터 이곳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이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렇게 행동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마르가리타이며, 이 것이 의미하는 것은  
스페인어로 데이지 꽃입니다. 저희 엄마가 저에게 이 이름을 지어주신 까닭은  
엄마가 꽃을 사랑하셨고, 저 역시 꽃을 사랑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멕시코 가족을,  
제 멕시코 이름을 그리고 포크로리코 춤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곳에서 태어났으므로 미국인이며,  
그리고 부모님이 멕시코인 이므로 저 역시 멕시코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가족 그리고  
제 친구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저는 멕시코에 사는 친척도  
그리고 미국에 사는 친척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이기도  
하면서 멕시코인기도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두 가지 모두 저에게는 똑같이 중요합니다.

미국이면서 멕시코인 이라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제 가족이 있어, 특히 엄마, 아빠 그리고 저의 새로운 자매,  
루페가 있어 매우 행복합니다.

# “아 마르가리타(A margarita)”

뽀르 루벤 다리오(por Rubén Darío)

## “마르가리타에게”

루벤 다리오(Rubén Darío) 지음

영어 번역

로살마 수비살레타(Rosalma Zubizarreta)

마르가리타, 오늘 바다는 정말 고요하구나,  
그리고 부드러운 산들바람은  
부드러운 등화유 향을 싣고 왔지.  
내 영혼 어딘가에  
찬양하는 종달새 한 마리.  
나는 너의 이름을 들었지...  
마르가리타,  
너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고 싶구나.

옛날에 강력한 왕이 있었지  
그는 다이아몬드로 만든 성,  
햇빛으로 만들어진 텐트,  
온 세상의 모든 꼬끼리 무리,  
공작석으로 만들어진 정자,  
최고급 실크로 만든 망토,  
그리고 그의 딸, 다정한 공주,  
사랑스러운 딸,  
마르가리타,  
너처럼 아름다웠지.

어느 날 저녁, 어린 공주는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았지  
매우 용감하고 대담한  
공주는 생각했지-할 수 있으리라, 아니 적어도 시도는 할 수 있으리라  
별을 찾아 집으로 가져오기 위해  
그녀가 만들고 있는 브로치에,  
한편의 시와 한 알의 진주  
깃털 한 장 그리고 꽃잎 한 장  
아, 어여쁜 것을 좋아하는 공주들은  
너처럼



백합을 꺾고, 장미를 꺾고,  
 별도 꺾지. 공주들은 그리하지.  
 자, 사랑스러운 소녀는 집을 떠나  
 하늘 아래 그리고 바다 건너  
 반짝이는 별을 찾아  
 그녀의 마음을 빼앗아 간 그 별을 찾아서.  
 더 높이 그리고 더욱 더 높이 올라가  
 달을 지나 아니 그 훨씬 넘어  
 그러나 그녀가 잊고 있던 것이  
 가도 되는지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하는 일이었지.  
 드디어 그녀가 하느님의 정원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빛을 발산하고 있었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  
 그녀는 신비한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어.  
 그때 아버지가 물었지, 어디에 갔던 거니?  
 너를 찾았단다, 하늘과 땅 모두  
 대체 너 무엇을 입고 있는 거니  
 그 반짝이는 귀한 보석은 대체 무엇이니?  
 공주는 차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대로 말을 했어.  
 “저는 푸른 하늘에 갔었어요,  
 제 브로치에 맞는 별을 찾아서요.”  
 왕은 딸에게 크게 화를 냈지  
 “오, 정말 어리석구나!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지 않았니?  
 감히 하늘의 것을 탐하면  
 하느님의 분노를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 공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지.  
 “해를 끼치려던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파도를 탔어요, 그리고 바람을 탔어요,  
 저는 별을 발견했고,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공주는 슬픈 눈빛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사랑스런 빛의 꽃을,  
 그때 갑자기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하느님.  
 왕과 공주를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왕과 공주를 안심시켜 주었지.  
 “나는 이 장미를 공주에게 주었지  
 내 정원을 걷고 있을 때였지.  
 내 모든 꽃은 꿈과 생각 속에 나를 간직해준 이들의 것이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온 왕은  
 포고령을 내려  
 4백 마리의 코끼리들은  
 바다의 끝을 따라 행진하라고 했지.  
 사랑스러운 공주는 매우 빛나보였어  
 그녀의 가장 좋은 브로치를 차고 있었거든,  
 빛을 비추었지, 그녀의 별 옆에서,  
 깃털 하나 그리고 꽃잎 한 장 그리고 한편의 시와 한 알의 진주  
  
 마르가리타, 오늘 바다는 정말 고요하구나,  
 그리고 부드러운 산들바람은  
 부드러운 등화유 향을 싣고 왔지.  
 너의 한숨 소리를 들었지.  
 너는 단연코 소중한 사람이 될 것이므로  
 너의 마음에 온화한 생각들을 넣어 두렴  
 언젠가 만날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 “아 마르가리타(A Margarita)”/

## “마르가리타에게”에 대하여

1908년, 나카라과(Nicaragua)에사는 유명한 의학 박사인 루이스 데바일레(Luis A. Debayle)가 루벤 다리오(Rubén Darío)를 이슬라 델 카르돈(Isla del Cardón)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으로 초대하였다. 그 곳에서 머무는 동안, 루이스의 5살난 딸, 마르가리따 데바일레(Margarita Debayle)는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였다. 그 아이를 위해, 다리오는 장차 가장 유명한 스페인어 시 중 하나가 되는 바로 이 시를 쓰게 되었다.

많은 형태의 아름다움에 대한 헌사인 이 이야기는 진심어린 바람으로 별을 쫓는 것처럼 딸 수 있게 된 어린 공주의 순수함을 찬양하고 있다. 그가 “내 영혼 어딘가에 찬양하는 종달새 한 마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그로 인해 앞으로도 자신이 따스한 마음으로 기억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에는 다리오의 창의적인 원동력이 잘 들어나 있다.

다리오는 매우 능수능란하면서도 복합적으로 시의 라임과 리듬을 맞췄기 때문에, 그의 시를 번역하는 것은 매우 벅찬 과제였다. 로살마 수비살레타(Rosalma Zubizarreta)는 매우 엄격하게 맞춘 번역 보다는 새롭고, 접근이 용이한 영어 번역본을 만들어내길 바랐다. 그녀는 가능한 원작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기존 시의 명랑함과 음악성을 잘 전달해 내기 위해 몇몇 구절들을 내용에 맞춰 조정하기도 했다.

# ‘춤추는 우리집’ 독자를 위한 안내

알마 플로르 아다 & 가브리엘 수비살레타

이 책의 저자는 효과적인 독서란 그녀가 창조적 독서라고 기술하고 있는 과정, 즉 비록 어떤 소리가 나진 않지만, 독자와 책 내용 사이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독자들이 각자 지닌 배경지식으로 인해, 개인들의 독서는 저자의 사고를 초월하게 된다. 독자들의 과거 경험은 글을 통해 얻는 느낌과 그 글이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증폭시킨다. 무엇보다도, 독자는 책 내용과 상호 대화를 통하여, 그들 삶의 새로운 가능성, 더 많은 호의, 연민, 그리고 남을 공감하며 행동할 수 있는 힘, 마지막으로 더 넓은 이해심 또는 결단력을 가지고 더욱 더 현명하게 행동하기 위한 지식을 발견할 수 있다.

## 책에 대하여

멕시코는 마지 부모님의 고향일 수는 있지만, 분명히 말하자면 마지의 고향은 아니다. 그녀는 학교 친구들에게 자신이 다른 이들처럼 완전한 미국인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그녀의 멕시코 사촌 루페가 오고 난후, 마지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미국인의 이미지는 무너져버렸다.

루페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아빠가 일을 찾아 미국으로 떠난 후 루페는 멕시코가 더 이상 예전의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루페는 미국에서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위안을 얻기는 했지만,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일은 매우 힘들었다. 마지만큼 루페도 친구가 필요했다.

너무나도 달랐던 두 소녀가 하나의 춤을 통해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가정의 진정한 의미와 소중함을 배우게 된다.

## 토론 질문

1. 마지가 루페의 전학을 돕기 위해 학교 교장실로 갈 때, 그녀는 북아메리카 지도를 보았고, 미국과 캐나다는 선명하고, 강렬한 색으로 이뤄져 있는 반

- 면, 멕시코를 포함한 지역은 형용하기 어려운 칙칙한 흙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 지도가 형상화한 이미지는 마지가 부모 고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도록 하였는가? 마지는 자신이 멕시코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느낀 것인가?
2. 루페가 등교 첫날 입었던 원피스를 떠올려보라. 그 원피스는 루페에게 어떤 의미인가? 왜 마지는 원피스에 대해 루페와 상반된 반응을 보였는가? 마지는 왜 격한 반응을 보였는가? 당신이 마지라면 기분이 어떤 것 같은가?
  3. 처음엔 망설이던 루페가 왜 그녀의 고모 콘수엘로와 함께 캘리포니아로 떠날 결심을 하게 되었는가? 루페가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이방인이 된 것처럼 느꼈다.” 그녀는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루페가 가정생활에서 겪은 변화들 중 어떠한 것이 루페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
  4. 마지는 자신은 미국인으로서 국경의 북쪽, 즉 미국에서 태어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마지는 무엇 때문에 자신이 미국 시민이라는 점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는가? 마지가 출생지를 가지고 미국 시민임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은 출생지가 온전한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단 하나의 자격요건이라고 생각하는가?
  5. 마지는 진정한 미국 소녀라면 길고, 곧게 뻗은 머리가 아닌 갈색 곱슬머리를 가져야 한다며 엄마를 설득했지만, 이후 엄마가 루페의 머리를 빗질해주고, 땅아주자 그녀에게 시기심을 느낀다. 당신은 마지가 루페에게 질투를 느낄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를 들어보시오.
  6. ‘춤추는 우리집’이라는 제목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는 여러 중요 사건과 인물관계 중 책 제목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7. 마지가 엄마에게 학교에서 사촌을 위해 했던 스페인어 통역에 대해 난색을 표시할 때, 마지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는 미국이에요. 영어를 쓰는 나라라고요. 미국에 살면, 미국인의 언어를 써야죠, 모두가 사용하는 말어요.” 당신은 이와 비슷한 말을 들어보았는가? 당신은 영어를 제외하고 할 수 있는 언어가 있는가? 당신의 가족은 어떠한가? 이중 언어 사용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8. 마지가 멕시코에 대한 친구의 가치관을 접한 후, 그녀에게 생긴 변화는 루페, 그리고 마지 부모와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9. 마지는 루페가 함께 살게 된 후, 자신의 가족이 이전까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던 방식 대신 전통적인 멕시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것에 대해 왜 실망했는가? 당신은 마지 부모가 옳다고 생각하는가?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며 마지와 루페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10. ‘즐거운 우리집’의 다양한 배경을 생각해 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장소를 들어보시오. 본문 내용 중, 당신이 이야기 흐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며,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11.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마지는 카밀리에게 동질감을 느꼈나? 두 소녀는 어떤 면에서 비슷한가? 당신은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싶은가,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변화 되는가?
12. 루페에 대한 설명을 하시오.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녀의 감정에 공감한 적이 있었는가? 설명하시오.
13. 마지 삼촌의 방문은 어떠한 면에서 마지로 하여금 루페가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는가? 루페 아빠는 많은 면에서 루페를 실망시켰지만, 결국 딸에게 큰 선물을 남길 수 있었다. 당신은 루페가 그녀의 아빠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대답을 기술하시오.
14. 소설 표지 그림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어떤 면에서, 표지 그림이 이야기 속 일련의 사건들의 상징하고 있는가?
15. 어떤 면에서 마지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사고가 소설 전체에 걸쳐 변화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면에서 카밀리는 마지가 멕시코 전통을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였는가?
16. 이 책은 이민자 학생이 경험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당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17. “이 책의 내용은 \_\_\_\_ 대한 이야기이다.” 라는 문장을 활용해, ‘춤추는 우리 집’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 할 수 있다. 당신이 빈칸에 넣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 연계 활동 및 자료 조사

1. 이 소설을 통해, 독자는 마지의 조부가 브라세로 프로그램에 41)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 브라세로 프로그램에 대한 더 많은 정보, 즉,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했는지, 농장 노동자들은 주로 어디에서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등에 대하여 도서관 참고 서적과 인터넷을 활용하여 알아보시오.
2. 이야기 속에서, 마지는 미국식 크리스마스 대신 더욱 더 멕시코 전통적인 방식으로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것에 대해 강력히 저항했다. 멕시코와 미국 크리스마스 사이의 중요한 공통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도서관참고 서적과 인터넷을 활용하여 알아보시오.
3. 주제와 연관관계를 찾아보시오. ‘춤추는 우리집’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예를 들어, 가족, 우정, 희생과 용기와 같은 것들이 있다.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여 이 주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사례를 책에서 찾으시오.  
‘[readwritethink.org/lesson\\_images/lesson826/char.pdf](http://readwritethink.org/lesson_images/lesson826/char.pdf)’의 사례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인생 수업 차트를 완성해 보시오.
4. 춤은 소설 속에서, 특히 마지와 사촌 루페와의 관계 정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음악, 의상 그리고 *신코 데 마요*와 같은 중요 행사를 거행하는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포크로리코* 춤이 내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5. 언어는 ‘춤추는 우리집’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미국의 언어 역사에 대해 찾아보시오. 영어를 사용하기 전 이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가? 하나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에게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가? 여러 언어가 사용 되고, 지켜질 때 사회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6. ‘춤추는 우리집’에서 마지의 이야기 그리고 루페의 이야기는 상호관의 연결성 및 관계 그리고 가족 화합에 대한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신에게 어떠한 특별한 관계가 존재하는가? 무엇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만들었는가? 당신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에세이 항목을 구성해 보고,

41) 브라세로 프로그램은 미합중국과 멕시코 정부가 체결한 노동력에 관한 외교적 합의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시오:

-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 \*이들과의 관계가 당신에게 왜 그토록 소중한가?
-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한 가장 큰 희생은 어떤 것이 있는가?
- \*당신이 삶에서 이룬 변화가 당신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모듬을 이루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 보시오.